

코스피	코스닥
6755.75 (+65.13)	764.86 (+16.64)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865 (-0.094)	1469.40 (+2.80)

LG이노텍
카메라·AI기판 호조
영업익 2057% 경증
03



李 대통령, C-390 수송기 시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 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도착해 C-390 수송기 관련 브라질 현지에서 교육받고 있는 우리 공군 조종사 및 정비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 주인 찾는 보험사… 내달 M&A 4건 ‘분수령’

인수가격 넘어 추가자본 등 관심
신한 “롯데손보 외에도 검토중”
2700억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KDB생명, 내달 7일 본입찰 가능성
삼성·한화 등 5곳 예비입찰 참여

국내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시장이 오는 8월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그 동안의 탐색전이 실제 협상과 본입찰,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앞두고 있어서다.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에별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4곳의 주

인에 관심이 쏠린다. M&A 성패는 인수 가격 뿐만 아니라 인수 후 추가 자본 투입, 매도자 지원 조건과 금융당국 승인에 달렸다는 평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와 KDB생명, 에별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매각이 각각 가격 협상과 본입찰, 주식매매계약(SPA), 제재 결과라는 관문을 앞두고 있다. 오는 8월 전후로 거래의 윤곽이 예상된다. ◆ 신한-롯데손보, 가격보다 ‘자본효율’ 장정훈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3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

재 롯데손보 외에도 다양한 매물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이 롯데손보를 직접 거론하고 인수 검토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신한금융은 안정적인 보통주자본(CET1)비율 안에서 거래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CET1비율 13.0~13.4%를 관리 구간으로 두고 이를 웃도는 자본만 M&A에 활용하는 한편 투자 수익률(ROI)과 주당순이익(EPS), 주주 환원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지겠다는 것. 시장에서는 롯데손보 최대주주인 JKL 파트너스가 매각 희망가격을 약 1조원의

로 낮췄지만 신한금융과의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8월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JKL이 9월까지 공개매각에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한금융은 같은 날 2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결정했다. 주요 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 공식 목적은 자본비용 제고와 운영자금 조달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 인수자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평가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LG 액체냉각, 엔비디아 인증 삼성전자, HBM5 동작속도 50% 향상

600kW급 ‘냉각수 분배 장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LG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엔비디아의 액체냉각 장비 품질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나섰다. AI 서버의 발열이 급증하면서 액체냉각 기술이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 확보와 공급망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LG전자는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600kW급(킬로와트)급 ‘냉각수 분배 장치(CDU)’에 대한 최종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 받은 LG전자 600kW급 CDU는 액체냉각의 심장 역할을 하는 핵심 설비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에서 활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고성능 GPU 등 최첨단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AI 서버 랙(Rack)의 전력밀도와 발열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 공간 전체를 식히는 기존

의 공랭식(Air Cooling) 냉각 방식에 칩셋의 열을 직접 흡수하는 액체냉각 솔루션을 추가로 결합하는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LG전자의 CDU는 고밀도 AI 서버의 GPU와 CPU에 장착된 쿨드 플레이트로 냉각수를 순환시켜,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는 ‘다이렉트 투 칩(DTC)’ 솔루션을 구현해 기존 공랭식 시스템과 시너지를 발휘한다. 온도 제어 정밀도를 ±0.25℃까지 구현해 고발열 AI GPU의 열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가상 센서(Virtual Sensor) 기술과 누수 감지 기능을 지원하며,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센터 통합관리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된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장애 대비 운전 시험에서도 펌프나 CDU 그룹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예비 장치로 안정적으로 전환돼, 냉각 운전이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GAA 기반 2나노 공정 적용

삼성전자가 8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5)에 게이트올라라운드(GAA) 기반 2나노 공정을 적용하며 인공지능(AI)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HBM의 핵심 구성 요소인 베이스 다이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끌어올리고,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탄력 경쟁력을 앞세워 AI 반도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27일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 따르면 구자홍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기술개발실장(부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HBM5는 직전 세대인 HBM4E보다도 동작 속도를 약 50% 이상 향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베이스 다이에 동작 속도는 물론 전력 효율 관점에서도 큰 폭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첨단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HBM5의 베이스 다이는 GAA 구조를 사용하는 2나노 공정을 적용하고 더욱 높은 집적도의 TSV를 구

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한 데 이어 HBM4E 12단 샘플도 출하했다. HBM4 베이스 다이에 파운드리 4나노 4세대 공정이 적용됐으며, 차세대 HBM5에서는 이를 2나노 공정으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라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는 “HBM은 코어 다리와 베이스 다이를 쌓아 패키징하는 제품”이라며 “삼성전자 HBM은 코어 다이는 메모리에서, 베이스 다이는 파운드리에서 각각 제조한 후 TSP에서 패키징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턴키(Turn-key) 솔루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메모리·파운드리·TSP 조직들이 협업하여 속도, 전력, 발열 및 수율에 유리하게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고 양산 제품을 완성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김용범 정책실장 “보유세 강화면 다주택자 퇴로 검토” /사진 뉴시스
▲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정성호 사의표명설에 “검찰개혁 95% 달성… 새 술은 새 부대에”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중대본 가동

▲“장윤기 사형 내려달라”…유가족들, 눈물의 호소
▲고위험 폭음 남성 줄었는데 30대 이상 여성은 늘었다

정부, '원유 스와프 제도' 시행 준비 경보단계 점검... 유사시 상향 검토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산업부, 원유 공급망 리스크 점검
비중동산 대체물량 확보 등 대응
“위기상황 발생시 정책역량 총동원”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홍해 해상 수송로의 통항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정유 및 해운업계와 함께 국내 원유 도입선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비상 수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사시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즉시 가동하고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는 등 공급망 교란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양기욱 산업자원 안보실장이 주재로 정유업계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인 홍해 안부항을 비롯한 주요 해상 수송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급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도입 원유는 7~8월 물량의 경우 전년 대비 100%를 초과해 확보한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상태다. 오는 9월 도입분 역시 90% 이상 차질 없이 확보해 당장 눈앞에 닥친 수급 우려는 낮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우디 안부항을 거치는 유조선이 홍해를 통항할 때 돌발 위험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공급망 리스크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유·해운업계는 민관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에즈 운하와 수메드 파이프라인 등을 통한 우회 수송로 협

의에 착수하고,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비중동산 대체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유사시 즉각 물량을 융통할 수 있는 ‘원유 스와프 제도’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향후 상황에 따라 원유 수급 위기경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회의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비축유 스와프 제도 즉시 시행 등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중동상황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정유업계와 해운업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세 속에서도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최장 4주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건보료 공제 축소... 178만명 보험료 오른다

소득월액 공제 2000만원 → 1000만원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말고도 임대소득 등을 벌어들이는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현행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보건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보료는 크게 두 가지다.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있고,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얻는 부수입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 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50% 삭감하는 것이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

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 수는 178만 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를 차지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070억 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 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 원, 2022년 9월 2000만 원으로 잇따라 축소됐다.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이에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인수후보 옥석 가리기... 자본투입 규모 ‘축각’

» 1면 ‘새 주인 찾는 보험사...’서 계속

롯데손보 관계자는 “매각은 최대주주가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회사는 경영개선계획 이행과 자본건전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KDB생명, 본입찰 가시권

산업은행이 일곱 번째 매각에 나선 KDB생명은 8월 7일 본입찰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비입찰에는 삼성·한화·교보생명 과 흥국생명,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5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 설명회와 실사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다만 본입찰 날짜와 참여 후보는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삼성생명과 흥국생명,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완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경영진 면담과 실사를 진행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흥국생명은 KDB생명을 품으면 자산 규모를 약 40조원으로 키우고 전속설계사 채널을 보강할 수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보험업 진출이라는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

KDB생명의 자본 부담은 후보를 가려낼 핵심 변수다.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186.1%지만 경과조치를 제외하면 74.5%로 낮아

진다. 산업은행이 매각 전 어느 정도까지 자본을 보강할지, 인수자가 거래 이후 얼마를 추가 투입할지가 제시가격과 함께 본입찰의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 예별은 지원 조건, 카디프는 제재

예별손보는 4건의 거래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0일 OK금융그룹 계열 오케이넥스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배타적 협상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OK금융은 예보에 1조14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3년간 4000억원을 자체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액과 투자계획은 예보가 확정해 발표한 계약 조건이 아니다. SPA 체결과 자금지원 조건 확정,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최종 인수가 가능하다.

카디프생명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양측이 SPA 문구를 조정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NP파리바카디프 보유 지분 85%만 거래할지, 신한은행 지분 15%까지 포함할지 역시 관심사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제재 결과와 매각 지분·가격, 인수 이후 판매량 재편 비용이 남은 변수다. /김주형 기자 gh471@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제재’ 최종결론 지연

금융위, 제재 실효성·비례성 고심
이달 정례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안 전파매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확정이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면서 오는 31일 정례회의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홍콩H지수 ELS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징금 규모와 추가 감경 여부를 둘러싼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6000억원 인박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다만 해당 금액은 금융위 의결을 거친 최종 제재 수준이 아니라 금감원 단계에서 산정한 안이다.

앞서 금감원이 제시한 과징금은 약 1조 4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5월 산정 근거와 제재 수준을 다시 살펴 보도록 하면서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조정됐고, 수정안의 과징금 규모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현재 금융위는 수정안을 바탕으로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과 은행별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남아 있어 최종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에서 발생한 은행권 고객 손실은 이미 수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개였으며, 투자 원금 10조 4000억원 가운데 4조 6000억원이 손실 처리됐다. 누적 손실률은 44.2%로 집계됐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권은 홍콩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해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실시한 만큼, 별도로 가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매 수수료에 그치는 데도 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고민도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시행된 이후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과징금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과징금을 추가로 큰 폭 감경할 경우 소비자보호 원칙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제재의 실효성과 비례성을 함께 따져 보고 있다. 통상 8월에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제재안 확정은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금융위가 8월 중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지난해 9월 외부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제재안은 오는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개월 반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고, 조자진 전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내용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겼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23일 두 차례 안건소위를 열어 금감원과 롯데카드 측의 입장을 듣고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정례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수위를 그대로 확정할지, 일부 낮출지를 두고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외부 해킹은 사고의 원인이고, 개인정보 유출은 그에 따른 피해 결과다. 당국 내부에서는 외부 공격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당시 보안 관리가 미흡해 대규모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만큼 롯데카드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다만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권에서는 사고의 특수성과 사후 수습 노력,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이 일부 감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4MW 등 대용량 CDU 전 라인업 인증 추진

» 1면 ‘LG 액침냉각, 엔비디아...’서 계속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인증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는 핵심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증을 확보한 기업은 하이퍼스케일러 등 주요 고객사의 기술 검증 기간을 단축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LG전자가 이번 인증을 획득한 것도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메가와트(MW)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

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1MW·2.5MW·4MW 등 대용량 CDU 전 라인업을 대상으로 엔비디아 인증 획득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은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신뢰성 높은 액체냉각 솔루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LG전자의 독보적인 자체 냉각 기술과 그룹 차원 역량을 결집한 ‘원(ONE) LG’ 통합 인프라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분야의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카메라·AI기판 판매 호조... LG이노텍, 2분기 최대 매출

영업익 2458억 전년비 2057% 증가
상반기 매출 사상 첫 10조원 돌파
광학솔루션 4조5179억 48% 성장
AI 서버용 고부가 기판 공급 확대
베트남 생산기지 증설 투자 본격화

LG이노텍이 계절적 비수기에도 모바일 카메라 모듈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사업 호조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거뒀다. 회사는 베트남 반도체 기판 생산기지 증설과 패키지 솔루션 사업 확대를 통해 AI 인프라 투자 수요를 선점하는 한편 자율주행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사업도 미래 성장 축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LG이노텍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4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41% 늘어난 5조5272억원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반기



LG이노텍 마곡본사.

/LG이노텍

누적 매출은 11조621억원으로 사상 처음 상반기 매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모바일 용 고부가 카메라 모듈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가운데 AI 서버용 반도체 기판 공급 확대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LG이노텍 관계자는 "1분기에 이어 모바일 카메라 모듈 수요가 지속됐고 고주파수 시스템인패키지(RF-SiP), 플립칩

칩스케일패키지(FC-CSP),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고부가반도체 기판 공급 호조도 이어졌다"며 "차량카메라와 통신·조명 모듈 등 모빌리티 부품 매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부별로는 광학솔루션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광학솔루션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4조5179억원을 기록했다. 비수기에도 모바일용

고부가 카메라 모듈 판매가 견조했고 주요 고객사 신제품 공급과 차량 카메라 매출 확대가 실적을 이끌었다.

패키지솔루션사업은 AI 반도체 투자 확대의 수혜가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4984억원을 기록했다. RF-SiP와 FC-CSP 공급 증가에 이어 글로벌 고객사향 FC-BGA 공급도 확대되면서 고부가 기판 중심의 사업 경쟁력이 강화됐다.

모빌리티솔루션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5109억원을 기록했다. 차량 조명과 통신 모듈을 비롯한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었고 차량용 카메라 등 전 제품군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LG이노텍은 하반기에도 패키지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반도체 기판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센터

가 반도체 최대 수요처로 떠오르면서 AI 서버용 FC-BGA와 RF-SiP 등 고부가 기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능력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우위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LG이노텍은 이에 맞춰 기판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최근 패키지 솔루션 사업을 2031년 매출 3조원, 영업이익 1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AI 서버용 FC-BGA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베트남 생산 기지와 구미 사업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서버용 FC-BGA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초대면적 FC-BGA와 유리기판 등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며 AI 반도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주)두산, 계열사·전자BG 성장 2분기 영업익 38% 뛰었다

에너지빌리티·배터리 수익성 개선 견인
자체 사업 분기 기준 최대 실적 달성

(주)두산이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배터리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과 전자BG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뤘다.

(주)두산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5조5861억원, 영업이익 488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 영업이익은 37.8% 증가했다.

주요 계열사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분기 매출 4조7248억원, 영업이익 31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15.9% 늘어난 규모다. 상반기에는 국내외 가스터빈과 중동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7조1000억원을 수주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하반기 체코 원전 시공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자재 계약 등을 추진해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인 13조3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두산배터리의 2분기 매출은 2조44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매출 확대를 이끌었으며 미국 관세 환급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42.9% 늘어난 2917억원을 기록했다.

(주)두산 자체 사업도 전자BG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체 사업 부문의 매출은 7652억원, 영업이익은 2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두산은 하반기에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시장의 수요 확대에 대응해 고수익 제품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장 수요와 제품 구성 개선을 반영해 자체 사업 부문의 올해 매출은 약 3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셀트리온, 신제품 성장에 영업익 86% 증가

신제품 매출 8249억·비중 65%
영업이익률 32.4%까지 상승
하반기 신제품 비중 70% 목표

셀트리온이 미국 의약품 시장에 안착한 신약 '집펨트라' 등 고수익 신제품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다시 썼다.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1조3937억원, 영업이익 4518억원을 확정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86% 증가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올렸다. 지난 3일 발표했던 잠정 실적과 비교해도 매출액은 937억원, 영업이익은 218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7.2%p 상승한 32.4%다.

이러한 호실적은 신규 제품군이 견인했

다. 기존 주력 제품인 램시마, 트루시마, 하쥬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급증한 8249억원이다. 전체 바이오 제품 매출에서 신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5% 수준으로 커졌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신약으로 발매하고 있는 '집펨트라'다. 올해 2분기 매출은 467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500억원대에 진입한 후 올해 들어 1분기 528억원, 2분기 467억원 등을 기록해 왔다. 상반기 누적 매출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36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995억원으로 176% 커졌다.

또 출시 이후 월 평균 처방 성장률은 23% 수준으로 성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 자산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 MTS

개비마블
KB마블

금리·매매
비용을
절감

투자실력부터 자산성장까지
시작은, KB마블로부터!

매일 아침 1분 정보
오늘의 콕

전문가의 투자 전략
PRIMECLUB

한 눈에 보는 ETF 흐름
ETF 인사이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2277호(2026.05.14~2027.05.13)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주식 주식거래 시 수수료 (비대면계좌)는 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KB증권

3000만원 시작... 40년 만에 ‘자산 4.5조’ 기업으로 우뚝



1986년 창간호 중양완전학습.



대한민국 학습지 대중화의 토대가 된 '빨간펜'.



교원 웰스(Wells)의 슬림원 직수정수기.

/교원그룹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교원그룹

KYO WON 교원

3000만원으로 창업한 회사는 40년 만에 자산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중견그룹으로 우뚝 섰다.

한 권짜리 학습지를 만들던 회사는 그 사이 계열사를 10곳까지 늘리고 교육문화, 생활문화, 호텔·레저 등 토털 라이프 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1985년 창업, 지난해 40주년을 맞은 교원그룹의 면면이다.

마흔살을 넘긴 교원그룹은 100년을 향해가며 대한민국 기업사에서 의미있는 성장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

27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그룹의 매출은 1조3488억원, 자산은 4조475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하나로빌딩. 창업주 장평순 회장이 교원그룹 전신인 중앙교육연구원을 설립한 장소다. 당시 장 회장은 35평 임대사무실에서 직원 두명을 데리고 도전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누려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교원그룹의 출발을 알린 것이다.

당시만해도 국내 학습지 시장은 초창기였다. 일부 대형 출판사가 교재만을 판매하거나 우편으로 학습지를 보내는 단순 통신 교육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학습관리’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중앙교육연구원은 출발부터 방향이 달랐다. 단순한 교재 제공이 아닌 ‘학습관리 중심 학습지’ 방식을 도입하며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집었다.

지난해 40주년... 매출 1.3조, 자산 4.5조
중앙교육연구원, ‘학습관리 중심 학습지’ 도입
이후 ‘빨간펜’으로 발전, 학습지 대중화 토대

저출산·디지털화, 에듀테크로 위기 극복
AI 기반 진단·맞춤 피드백 등 학습효과 ↑

교원웰스, 사업 포트폴리오 웰니스로 확장
교원라이프, 계열사 연계 라이프케어 강화
교원투어, 교원헬스케어 등 생활문화 공략
베트남 등 ‘K-교육’ 글로벌 진출 확대 박차

창업 이듬해인 1986년 창간호 중양완전학습은 학교 진도에 맞춘 체계적 학습과 교사 첨삭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진도식·맞춤형 학습지였다. 이후 이 모델은 ‘빨간펜’으로 발전하며 대한민국 학습지 대중화의 핵심 토대가 됐다.

교원그룹은 이후 적극적으로 콘텐츠 카테고리를 확장했다. 1987년 전집 ‘저요저요’, 1990년 구문학습·공문교육연구원 설립, 1991년 ‘과학소년’ 창간 등으로 교육 콘텐츠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며 ‘구몬’과 ‘빨간펜’을 양대 축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다.

2000년대 이후 교육사업은 저출산, 디지털화 등으로 위기를 맞는 동시에 변화도 겪었다. 교원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1980년대 학습관리형 학습지로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것처럼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에듀테크로 빠르게 전환했다.

2015년 스마트 빨간펜을 시작으로 2017년 스마트구몬, 2023년 스마트구몬N까지 선보이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학습 플랫폼을 구축했다. AI 기반 진단·맞춤 피드백, 다양한 디바이스 호환, 데일리케어형 학습관리 등으로 학습효과를 대폭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원그룹은 2020년 당시 교육사업 매출이 1조714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에듀테크 부문만 절반이 넘는 5267억원을 달성하고, 회원수도 58만명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차지하며 디지털 학습 전환을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장평순 회장은 “AI 시대에 교육 분야에서 가장 앞서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한다”며 “구몬과 빨간펜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AI와 결합하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차원이 다른 학습 관리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발판삼아 생활 문화·호텔 레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후 교원그룹은 교육분야의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렌탈·상조·여행·호텔 등 생활문화 사업을 적극 육성하며 매출 다변화에 나섰다. 교육과 비교육분야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면서다.

생활문화사업 부문에선 ‘혁신 제품’과 ‘그룹 시너지 강화’를 지속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장 회장은 “시장에 없던 개척형 제품을 통해 렌탈 사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교원라이프와의 시너지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웰스는 정수기 ‘하이스원’과 ‘슬림원’을 앞세워 주력 제품의 세대교체를 본격화한 데 이어 차별화된 기능과 콘셉트를 갖춘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교원라이프와의 전략적 제휴도 확대해 렌탈 고객 접점을 넓히고 사업 간 연계 효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가전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웰니스 전반으로 확장하며 ‘웰니스 솔루션 컴퍼니’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배우 신애라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웰니스 토크쇼 ‘신신당부’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5월에는 집에서도 전문적인 좌욕 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홈스파링 비데 ‘스파원’을 출시하며 차별화된 웰니스 제품군 확대에 나섰다.

상조 사업을 담당하는 교원라이프는 그룹 계열사와의 연계를 확대하며 라이프케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여행·렌탈·호텔 등 그룹 내 사업과 결합한 전환서비스를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외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부민병원그룹, 던롭스포츠코리아와 협업을 시작하며 서비스 영역과 고객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전략은 전환서비스 성장으로 이어졌다. 전환서비스 이용 실적은 2024년 전년 대비 80%, 2025년에도 67%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교원투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여행 전환서비스가 전체 이용 실적의 2024년 75%, 2025년 67%를 차지하며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직영 장례식장 브랜드 교원예음 역시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2월 ‘교원예음 충주시민장례식장’을 신규 개장했으며 향후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장례 서비스 품질 제고와 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식품명인과 협업한 음식 서비스 강화 등 장례식장 운영 경쟁력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교원라이프는 2020년 당시 207억원이던 매출이 2025년에는 1359억원으로 5년새 6.5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선수금도 5020억원에서 1조6426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교원라이프는 선수금 기준으로 상조시장에서 잔빠가 굵은 보람그룹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이와 함께 교원그룹은 교원투어, 교원헬스케어, 스위트호텔(남원·제주),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노(KINOCK) 등 생활문화사업 전반에서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K-교육(Edu)’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길도 점점 넓히고 있다.

교원그룹은 2017년 8월에 베트남 국영기업 Vnpt미디어와 디지털 영어학습 프로그램 ‘도요새잉글리시’를 현지에 론칭했다. 이듬해 8월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브랜드 ‘교원더오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헬스, 뷰티 등 다양한 제품을 베트남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2019년 3월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유아 감성놀이 교육기관 ‘위즈아일랜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같은 시기에 교원웰스의 정수기와 교원더오름 화장품을 싱가포르와 카자흐스탄에 각각 수출했다.

아울러 베트남의 중견 건설·무역회사 박하(BACHA)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교원러닝 베트남 법인을 현지에 설립했다. 교원은 박하그룹이 건설하는 고급 주상복합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환경가전을 빌트인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교원위즈의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영어유치원도 베트남에 설립할 예정이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그룹은 단기 실적보다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AI 기반 교육 혁신과 전 생애 회원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과 생활문화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 잘하고 왔어요

경기를 마치고 나니
먼저 생각났어요

훈련하는 동안
뒤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덕분에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푹 쉬려고요

그리고 다시 힘내서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서정 선수

계속해서 이어질 당신의 도약을
국민과 함께 KB금융그룹이 응원하겠습니다

Korea Best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수영, 기계체조, 육상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체조 국가대표 여서정

* KB금융그룹

민주당 “수사·기소 완전 분리” vs 국힘 “범죄 대응 약화”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격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함께 심사
민주, 오는 30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27일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앞서 상정돼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들과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를 진행하다보면 별도로 검찰안이 있는 것 같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운 민주당 의원도 “과

거 검찰이 (검찰개혁을 두고) 저항을 많이 했다.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 그 밑에 고위직 검사들도 ‘사퇴 쇼’를 한다. 그리고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써서 시끄럽게 만들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 된다”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여론을 만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온갖 법기술로 현란하게 검찰 개혁을 반대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이 이런 짓을 하고 집단행동을 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에 계셨어서 알겠지만, 검찰에서 여러 파동이 있었다. 가장 큰 것이 직접수사권, 인지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많은 논의가 검찰 내부에 있었지만 검사들도 수긍을 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큰 흐름에 있어선 (검사들도) 계획에 동참한다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노인 학대, 아동 학대)의 경우 개별법을 통해 송치가 가능하도록 한 민주당 당론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불송치되는 사건 중에서 서민을 상대로 한 보이 스키싱 같은 경제범죄는 수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부분이 다시 걸러질 필요성이 있다. 약자 대상 범죄의 범위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당론안 중 송치 가능한 범죄를 한정한 것이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7대 범죄는 전체 범죄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 죄명에만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이스 피싱, 뇌물 받은 정치인, 마약 사건, 간첩 사건 등을 왜 검찰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나”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저도 주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한다”며 “서민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인 보이 스키싱 다단계 사건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여야 의원들이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여야에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4건도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은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는 있어야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전대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대결’

특정 당대표 후보 지지하며 세력 형성
팀김민석, 전체 투표율 높이는 전략
팀정청래, 충성 지지층 결집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김민석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과 정청래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로 나뉘어 세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전체 투표율을 높여 유리한 고지를 잡하려는 ‘팀김민석’과 자신의 충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팀정청래’ 간 선거 전략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엔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진출했고, 최고위원 선거는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운·박선원·임미애 후보가 본선에 올랐다.

이 가운데 김용·김영호·서미화·박선원·임미애 후보는 천명(천이재명)계를 대리한다고 알려진 김민석 당 대표 후보를 지

지하고, 최민희·한민수·이성운 후보는 정청래 당 대표 후보 지지를 일찍이 공개 선언한 바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각자 나눠 당 대표 후보들의 당원 간담회나 강연에 모습을 함께 드러내는 등 팀 대결을 방불케 하고 있다.

천청(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이 예비경선에서 모두 살아남아 지지층의 결집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팀김민석’은 전체 투표율 높이기엔 집중하고 있다. 권리당원의 표심이 대거 반영되는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천명 당원과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당원들도 포섭해 투표율을 끌어 올려야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당원 100% 투표 운동으로 당원 주권을 살리고 새 지도부의 통통성을 강화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김 후보 측은 투표 독려 운동을 진행하는 가

운데, ‘천명 4+1 투표전략’으로 최대한 많은 ‘팀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도부에 당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카페인 ‘재명아네 마을’엔 당 대표 표를 김민석 후보에게 몰아주고 동시에 최고위원 표는 홀수달 생일인 당원은 박선원·서미화 후보에, 짝수달 생일인 당원은 김용·김영호 후보에 표를 줘야 한다는 전략 공유되고 있다. 임미애 후보는 순회 경선 막판 서울에서 표를 몰아주고 TK(대구·경북) 5% 지역별 기중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팀정청래 측은, ‘집토끼’ 잡기에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심하지 마라. 이번에도 당심이 의심을 이긴다”면서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 당원들에게는 1인1표의 무기가 있으니까”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YTN라



김용 후보



김영호 후보



서미화 후보



박선원 후보



임미애 후보

(위쪽)천명(천이재명)계를 대리한다고 알려진 김민석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
(아래쪽)정청래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

/국회



최민희 후보



한민수 후보



이성운 후보

디오에 출연해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경선에서 제대로 반영된 이후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예비경선에서 최종 투표율은 37.44%였고 천청계 예비후보들은 모두 본선에 진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청래 후보의 개혁 당 대표' 구호에 동의하는 당원들을 끌어모으면 본선에서 과반 수 이상을 득표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1만7677명, 권리당원 152만7261명이다. 민주당은 30일까지 총청권역에서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진행한다. 이번 선거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가 같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70%, 국민여론조사가 30% 반영된다. 당 대표 후보자는 1~3순위까지 순위를 투표하는 선호투표제가 도입되고 최고위원 선거는 1인당 후보 2명에게 투표한다.

/박태홍 기자

보유세 개편안 임박… 靑 “핀셋형 대출 지원 검토”

“주택 공급 확대 우선”

청와대가 이른바 ‘뽕뽕한 한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살펴보자는 기조”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2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셋값과 관련해서는 “전세 사기 등 신뢰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커진 부분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다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지만 다 대출을 해드리면 집값이 오른다”며 “우리가 못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수요를 높이는 대출보다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규제로 대출이) 안 된

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이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은 보유세 강화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30억원’이 보유세 중과 기준이 될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여러 가지 안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 기자 syj@

정성호, 사의설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법무부장관)

靑 “공식 사의 표명 확인된 바 없어”

정성호 법무부장관(사진)이 27일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상당히 뜻밖”이라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 관련 질문에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이었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로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 원칙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점이 선언된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큰 틀의 검찰개혁이 완료됐으니 김민석 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발표 이전부터 사퇴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꿈에 그리던 NH농협은행 X 기안84 팝업 OPEN

나만의 모임 설계부터 꿈꾸던 여행,
아트 콜라보 전시, 특별한 베이커리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은행
DREAM BANK를 만나보세요



1F

HOPE ZONE

공간 안내	NH올원모임통장과 함께 모임의 즐거움을 발견
스페셜 혜택	나만의 DIY 키캡 키링 제작, 리미티드 굿즈 구매
주요 콘텐츠	모임력 테스트, 모임통장 게임, 럭키슬롯, 모임증 발급 등

2F

DREAM ZONE

공간 안내	NH트래블리체크카드와 함께 특별한 꿈을 실현
스페셜 혜택	기안84 콜라보 카드 전시 (모임, 여행, 러닝)
주요 콘텐츠	러닝 게임, 디지털 드로잉 월, 나만의 카드 스티커 꾸미기 등

3F

NH DREAM CAFE

공간 안내	국내산 쌀로 만든 달콤한 베이커리와 음료 제공
스페셜 혜택	나폴리맛피아 협업 스페셜 시그니처 디저트
주요 콘텐츠	1층에서 모임통장 발급 시 입장권 증정 (선착순/한정 수량)

날짜 : 2026.06.19. ~ 2026.07.31. 장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13길 11 시간 : AM 11:00 ~ PM 7:00

‘비용 효율화’ KB카드, 상반기 순익 3위 재탈환

KB 상반기 순익 2189억 21% ↑
영업비용 0.7%, 이자비용 3.5% ↓
현대 순익 12% 늘었지만 4위 밀려
영업비용 9.2%, 대손비용 11.7% ↑

카드업계 순이익 3위 경쟁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현대카드에 3위 자리를 내줬던 KB국민카드가 올 상반기 다시 우위를 점하면서다. 양사 모두 두 자릿수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KB국민카드의 성장 폭이 현대카드를 앞질렀다. 다만, 영업수익 측면에서는 현대카드가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위 주도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7일 실적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상반기에 누적 순이익 218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현대카드의 상반기 순익은 같은 기간 11.9% 오른 1852억원을 나타냈다.

KB국민카드가 현대카드보다 가파른 순이익 증가세를 보이며 3위 자리를 되찾았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해 현대카드에 순이익 3위 자리를 내줬었다. 업황 전반이 둔화하는 가운데 현대카드가 회원수, 해외 신용판매액 등에서 고른 성장



KB국민카드 전경.

을 보이면서다.

이번 상반기 실적을 가른 변수는 KB국민카드의 공격적인 비용 효율화다. 올 상반기 KB국민카드 영업비용은 1조78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자비용이 3.5% 줄었다.

일반관리비와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도 감소했다. 일반관리비는 2914억원에서 2856억원으로 2% 줄었으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4188억원에서 3936억원으로 250억원(-6%) 가량 감소했다.

현대카드의 경우 비용 폭도 확대되면서 순이익 상승 폭이 제한됐다. 현대카드 상반기 영업비용은 2조876억원으로 전년



현대카드 전경.

/각사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특히, 대손비용이 3300억원으로 11.7% 급증했다. 총당금 비용이 줄어든 KB국민카드와는 대조적이다. 영업 확장을 위한 판매관리비(+5.0%)와 카드비용(+5.1%)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만, 현대카드 매출(영업수익) 증가세가 KB국민카드를 앞지르고 있는 만큼 하반기 3위 주도권 다툼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KB국민카드의 상반기 영업수익은 2조76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 영업수익은 2조3372억원으로 10% 증가했다. 매출 규

모 자체는 KB국민카드가 여전히 크지만, 성장세 측면에서는 현대카드가 KB국민카드를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실제 현대카드는 “알파벳 카드, 디오렌지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회원 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는 하반기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우량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과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 KB페이(Pay)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및 뉴페이먼트 분야의 기술 기반과 파트너십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전성 지표는 양사 모두 개선세를 보였다. KB국민카드는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1.07%로 1분기 대비 0.14%포인트(p) 하락했다. 현대카드는 대환대출을 제외한 상반기 일반연체율 0.74%로 전년(0.79%)보다 0.05%p 개선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케이뱅크 “엄마한테 5만원 송금” ‘AI이체’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가 문장 입력이나 음성 명령으로 송금할 수 있는 ‘AI이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AI이체는 고객이 입력하거나 말한 내용을 AI가 분석해 송금 수취인을 찾고, 상황에 맞는 송금 금액까지 추천하는 서비스다.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최근 이체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어로 송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케이에게 5만원 보내줘”라고 입력하면 AI가 기존 송금 이력을 바탕으로 수취 계좌를 찾아 이체 화면을 구성한다. 자주 이용하는 계좌를 ‘엄마’ 등 별명으로 등록하면 해당 호칭만으로도 송금할 수 있다.

“조카 용돈은 얼마가 적당해?”, “대리님 결혼하신대”처럼 입력하면 송금 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분석해 추의금이나 용돈 등 적정 금액도 제안한다.

이름이나 별명, 계좌번호 일부만 입력해도 기존 송금 내역에서 관련 계좌를 실시간으로 추천한다. 음성 이체 기능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송금은 고객이 이체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 진행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평소 사용하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송금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라며 “AI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만, 반도체 수출 2위로… 中 승용차 수입액 獨 제쳐

한은, 제조업 생산·공급망 지도
반도체 수출비중 10년새 11%→26%
수출액 1위 中, 비중은 40%로 줄어
中 승용차 수입 4년새 3.5%→37%

한국 제조업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1.1%에서 지난해 26.1%로 뛰며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수요로 대만이 반도체 수출 2위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산 승용차의 국내 수입액 비중은 37.2%까지 급증하고 대미 전기차 수출 비중은 5.2%로 축소되는 등 제조업 공급망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제조업 생산액은 2091조7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40.5% 늘었다.

반도체 생산액은 지난 2014년 74조원



Chat GPT가 생성한 반도체 및 전기차 수출 이미지.

에서 2024년 210조8000억원으로 2.8배가 됐고 제조업 생산 비중도 5.0%에서 10.1%로 두 배 커졌다.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반도체 비중은 16.7%에 달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849억7000만 달러로 2014년의 2.9배였다. 전체 수출 비중은 11.1%에서 26.1%로 확대됐다. 생산의 82.3%가 수도권, 14.7%가 충청권에 몰렸다.

AI 반도체 공급망이 확장되면서 수출 목적지도 달라졌다. 대만 수출액은 2022년 127억7800만달러에서 지난해 367억6900만달러로 2.9배 늘어 중국에 이어 2위가 됐다. 대만 비중도 9.0%에서 19.9%로 뛰었다. 엔비디아 GPU에 국산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탑재되고 대만 TSMC가 생산·패키징을 맡는 분업 구조가 굳어진 영향이다.

중국은 최대 수출국을 유지했지만 비중은 53.1%에서 40.3%로 낮아졌고 수출액도 758억800만달러에서 744억56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성장의 이면에는 장비·소재의 해외 의존이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입액은 2014년 234억달러에서 지난해 499억달러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장비 수입 중 네덜란드 비중은 26.0%로 일본(23.7%)과 미국(16.9%)을 앞섰다. 첨단 반도체용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네

덜란드 ASML에 의존한 영향이다.

자동차 산업도 외형은 커졌다. 생산액은 지난 2014년 9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55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완성차 수출액은 484억달러에서 지난해 719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침투가 가팔랐다. 금액 기준 중국산 승용차 비중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37.2%로 뛰어 독일(37.0%)을 근소하게 앞섰다. 수입 전가차 31억7700만달러 가운데 중국산은 22억2300만달러로 70%를 차지했고, 전기버스 수입액 1억2200만달러는 전액 중국산이었다.

미국 보호무역의 충격도 뚜렷했다. 국내 전기차 수출 중 미국 비중은 2022년 33.6%에서 지난해 5.2%로 급락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수출 중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11.6%에서 20.4%로 높여 대응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워크숍에 참석한 그룹사 임원들이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 활용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임원 대상 ‘AX 워크숍’

하나금융그룹이 그룹사 임원 14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실습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X)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임원들이 생성형 AI를 실제 경영과 금융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 조직 내 AI 전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영 현안 브리핑, 금융시장·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 작성, 회의자료 요약 등 실제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했다.

하나금융은 현재 수출입 업무 자동화, 기업여신 심사 지원,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임원뿐 아니라 현장 직원까지 AI 교육 대상을 넓히고, 생성형 AI와 금융 특화 버티컬 AI를 결합해 그룹 전반의 업무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AI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금융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딥순회 AI를 잘 활용하는 금융회사를 넘어 AI와 함께 일하는 금융그룹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내달 서울 입주물량 3500세대… 올해들어 최대

전국적으로 1.4만세대 전월과 비슷
수도권 8924세대, 총 물량의 62%

다음달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3500세대 안팎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서울 전역에 영향을 미치진 힘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342세대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직방 관계자는 “입주물량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단지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은 반포 대단지

입주 영향이 큰 만큼 지역별 전월세 시장과 매물 변화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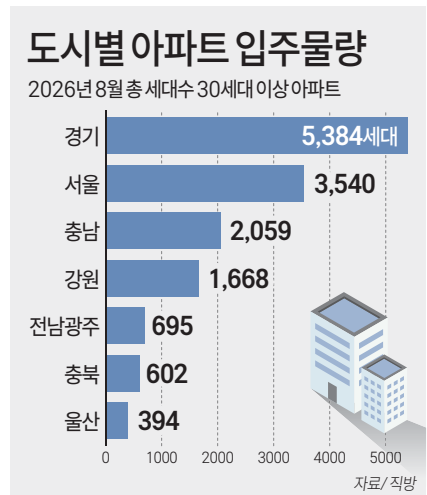
관계자는 또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변수를 함께 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시장에서는 최종 개편 방향을 확인하려는 관망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세계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924세대로 전체 입주의 62%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입주물량은 3540세대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 6

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세대)’ 입주가 서울 입주물량 증가를 견인했다. 이밖에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17단지(577세대)’, 마포구 신수동 ‘힐스테이트마포더퍼스트(488세대)’ 등이 입주한다.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 입주 영향이 큰 만큼 서울 전역의 공급 확대 흐름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다.

경기는 ▲평택시 2230세대 ▲수원시 2178세대 ▲이천시 558세대 ▲과천시 418세대 등 총 5384세대가 입주한다. 평택 ‘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도아얌가(1700세대)’와 수원 ‘배교역팰루스(2178세대)’ 등 대단지의 입주가 예정됐



다. 인천은 이달 입주 예정 단지가 없다.

지방은 5개 지역에서 총 5418세대가 입주한다. 충청남도가 2059세대로 가장 많고, 강원특별자치도가 1668세대로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 ‘갤럭시 Z8·워치9’ 사전 판매 더블 스토리지·AI 구독클럽 등 혜택

내달 3일까지 온·오프라인 진행
폴더블 라인업 첫 울트라 모델 추가
4일 수령·개통… 7일 국내 공식출시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시리즈’ 등의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 더블 스토리지와 AI 구독클럽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 ‘갤럭시 워치9’의 사전 판매를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공식 출시일은 내달 7일이다.

이번 갤럭시 Z 시리즈는 폴더블 라인업에 처음으로 ‘울트라’ 모델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대화면과 생산성, 카메라 성능을 강화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를 앞세워 초프리미엄 폴더블 시장 공략에 나섰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바이올렛 셰도우, 그라파이트, 크림, 그린 셰도우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2GB 메모리 기준 256GB 모델 257만7300원, 512GB 모델 283만300원이며, 16GB 메모리 1TB 모델은 345만1800원이다.

‘갤럭시 Z 폴드8’은 라벤더, 그라파이트, 크림, 피스타치오 등 4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가격은 12GB 메모리 기준 256



삼성전자는 내달 3일까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의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GB 모델 227만8100원, 512GB 모델 253만1100원, 16GB 메모리 1TB 모델 315만2600원이다. ‘갤럭시 Z 플립8’은 핑크, 그라파이트, 크림, 민트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12GB 메모리 기준 256GB 모델은 168만3000원, 512GB 모델은 193만6000원이다.

8세대 ‘갤럭시 Z 시리즈’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매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사전 판매된다. 사전 구매 고객은 내달 4일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개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한다. 또 폴드8 울트라와 폴드8의 512GB 모델 구매 고객은 31만700원을 추가 결제하면 1TB 모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512GB와 1TB 모델 간 가격 차이의 절반 수준이다.

사전 판매와 함께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도 시작한다. 이번에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처음 도입한 3년형 상품을 갤럭시 Z 시리즈에도 적용하고 분실 보상까지 추가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2’와 ‘갤럭시 워치9’도 같은 기간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8월 7일 공식 출시한다. 워치 울트라2는 LTE 모델(96만9100원), 워치9는 44mm와 40mm LTE·블루투스 모델로 출시된다. 구매 고객에게는 전용 밴드 할인 쿠폰과 워치페이스 구독권 등을 제공하며, 삼성전자는 SNS 인증 이벤트 ‘위꾸 챌린지’도 함께 진행한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신규 폼팩터의 ‘갤럭시 Z 폴드8’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노하우가 집약된 8세대 폴더블폰 라인업을 사전 판매로 가장 빨리 만나보시길 바란다”며 “‘더블 스토리지’ 할인,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할인 등 풍성한 혜택과 함께 신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지난 14일 중국 광저우 DFHM 본사에서 열린 라이양 원전 5·6호기 증기발생기용 단조품 계약 체결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DEI 황초 수출입담당, DFHM 임지강 구매부부장, 두산에너지빌리티 임성재 주단영업팀장. 뒷줄 왼쪽부터 DEI 손진평 수출입담당 부사장, DFHM 진려하 구매부사장, 두산에너지빌리티 정영철 주단BU장.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에너지빌리티, 中 원전시장 본격 진출

라이양 원전에 초대형 단조품 공급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중국 라이양 원전 5·6호기에 들어가는 증기발생기용 초대형 단조품을 공급한다. 지난해 라이양 3·4호기에 이어 후속 호기 물량까지 연속 수주하며 중국 원전 시장에서 초대형 단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중국 동광전기그룹 계열사인 DEI, DFHM과 중국 산둥성 라이양 원자력발전소 5·6호기용 증기발생기 초대형 단조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채널헤드 4개와 튜브시트 4개 등 총 8개의 초대형 단조품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채널헤드는 원자로 냉각재가 증기발생기로 유입·유출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증기발생기 하부 단조품이다. 튜브시트는 수천 개의 전열관을 지지하고 원자로 냉각재와 2차 계통의 물을 분리하는 핵심 단조품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조품은 직경 5m, 최대 130톤 규모의 초대형 제품이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로 증기를 생산해 터빈을 구동하는 원전 핵심 설비다.

김종두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은 “라이양 3·4호기에 이어 5·6호기 핵심소재 공급 계약까지 이어지며 중국 원전시장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축적된 제작 경험과 초대형 단조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LS에코에너지, 라이너스 300억 상호투자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 속도

LS에코에너지가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략적 상호 투자를 통해 원료 조달부터 금속 생산까지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희토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LS에코에너지는 라이너스와 각각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상호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체결한 희토류 사업 협력의 후속 조치다.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LS에코에너지는 라이너스

와 약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합의하고 희토류 사업 협력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생산법인 LSCV 부지에 희토류 금속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LS에코에너지는 비중국권 최초로 방산용 사마륨 금속을 생산하고, Dy·Tb, NdPr 등 희토류 금속으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이번 투자는 라이너스와 LS에코에너지가 희토류 사업을 함께 키워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인터, 무역업무 디지털 전환 속도

블록체인·AI 활용 인프라 검증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글로벌 무역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실제 거래 환경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역금융 인프라를 검증하며 거래·정산 효율화와 리스크 관리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LG CNS와 함께 실제 글로벌 거래 환경에 블록체인·AI 기술을 적용하는 무역금융 인프라 기술 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공동원장 기반 거래 상태 공유 ▲매출채권 실물연계자산(RWA) 토

등 3개 영역에서 글로벌 무역 업무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실증했다.

이번 검증은 글로벌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정산·서류 검토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자동화해 운영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PoC는 실제 무역 현장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운영 효율화 효과가 확인된 영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중 파일럿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SK 이노E&S, 에너지·석화 공급망 다변화 앞장

LNG 수급 등 바로사 프로젝트 성과
초경질유 30만배럴 국내 입항 예정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LNG)에 이어 초경질유까지 국내로 들여오며 에너지·석유화학 원료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원유·석유화학 원료 수급 구조에서 호주산 자원 도입이 확대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자원 안보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오는 8월 초 인천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가벼운 액체 형태의 원유로, 컨테이너로도 불린다. 일반 원유보다 가볍고 나프타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

어 석유화학 원료와 석유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SK이노베이션 E&S가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연간 초경질유 110만 배럴 가운데 일부다. 바로사 가스전의 연간 초경질유 생산량은 약 300만 배럴이며, SK이노베이션 E&S는 보유 지분 37.5%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도입된 초경질유는 SK인천석유화학의 초경질유 전용 설비에 투입된다. 이 공정을 거쳐 추출된 나프타는 파라자일렌(PX) 등 고부가 화학제품 생산에 쓰이고, 휘발유와 항공유 등 석유제품 제조에도 활용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올해부터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연간 도입 물량은 130만 톤으로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에 해당한다. 바로사 프로젝트 계약기간 20

년을 기준으로 하면 SK이노베이션 E&S가 확보한 자원은 LNG 2600만 톤, 초경질유 2200만 배럴 규모다.

호주산 LNG와 초경질유의 국내 도입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수급 리스크를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수급 불확실성과 운송비 상승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정적인 교역 인프라를 갖춘 호주산 자원 확보가 원료 조달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 E&S 관계자는 “바로사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해 상업 생산과 국내 도입까지 연결한 사례”라며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와 초경질유를 활용해 자원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의 수급 안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확대

‘EHS 올인원’ 실증… 소음 등 검증

삼성전자가 공동주택 냉난방의 전기화 전환에 대비해 아파트 환경에서 히트펌프 시스템 검증에 착수했다. 건물 부문 탄소중립 기조와 전기 기반 난방 확대 움직임에 맞춰 실제 주거 환경에서 성능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보급 기반 마련에 나

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환경에서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인 ‘EHS 올인원’ 실증에 나섰다

고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에 ‘EHS 올인원’을 설치하고 실제 아파트와 동일하게 조성

된 환경에서 ▲냉난방과 급탕 성능 ▲에너지 효율 ▲사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가스보일러 대비 난방 성능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비롯해 ▲냉방·급탕 성능 ▲전력 소비량 ▲소음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네이버, 엔비디아 10억弗 투자 유치 브룩필드와 90억弗 인프라 확보 협상

22년 만에 제3자 배정 유증
GPU·데이터센터 확보 추진
2027년 55MW AI팩토리 가동
글로벌 소버린 AI시장 공략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와 브룩필드의 대규모 인프라 자금 조달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GPU 확보부터 데이터센터 조달까지 AI팩토리 핵심 기반을 갖추며 소버린 AI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엔비디아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로 네이버 지분 4.5%(보통주 72만1564주)를 취득한다. 납입 예정일은 오는 10월 30일이다.

네이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22년 만이며, 2008년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 처음이다. 회사는 이번 투자가 지난 6월 양사가 발표한 기가와트(GW)급 글로벌 AI팩토리 구축 협력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브룩필드와의 협력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90억달러 규모의 GPU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보를 위해 글로벌 대체투자사 브룩필드를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브룩필드는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투자사로, 네이버는 이를 통해 AI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엔비디아 사옥에서 이해진 의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1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네이버

두 계약 규모를 합치면 약 100억달러에 이른다. 회사는 이를 통해 AI팩토리 사업의 핵심인 GPU 수급과 인프라 조달이라는 과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한다. 네이버는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약 1조원 규모의 자사주 400만주를 오는 8월 3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네이버클라우드도 엔비디아와 AI 컴퓨트 파트너십 계약도 논의 중이다. 양사는 기술 협력뿐 아니라 수요와 자본을 아우르는 형태의 협력을 추진해 AI팩토리 사업을 공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와 GPU 클러스터, AI 플랫폼,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서비스까지 모두 직접 운영하는 풀스택 AI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

다. 전국 20여곳의 GPU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장 규모 GPU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대규모 GPUaaS(서비스형 GPU)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2027년 상반기 55MW 규모 AI팩토리를 우선 가동한 뒤 2028년 200MW 규모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1GW급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소버린 AI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투자는 네이버 미래 성장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AI팩토리 고객사 확보에도 속도를 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SKT, 고객 참여형 ‘모두의 프롬프트’

라이프 AX·워크 AX 2개 분야 모집
내달 10일까지 만 14세 이상 참여

SK텔레콤이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고객 가치 혁신에 나기 위해 고객 참여형 ‘모두의 프롬프트’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K텔레콤이 자사 뉴스룸에서 추진하는 ‘굿 체인지’ 캠페인 일환이다. 굿 체인지는 인공지능 전환(AI)과 고객 가치 혁신(CX)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뉴스룸 콘텐츠로 소개 중이다.

고객 참여형 공모전인 모두의 프롬프트는 AI가 누구나 활용 가능한 생활 속 도구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참가 희망자는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일상 및 업무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례 등을 담아 구성한 독창적인 프롬프

트를 SK텔레콤 뉴스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 분야는 두 가지다. 일상 속 문제 해결 사례를 모집하는 ‘라이프 AX’, 업무·학습 생산성 향상 사례를 모집하는 ‘워크 AX’ 등이다. 응모 기간은 27일부터 8월 10일까지다. 만 14세 이상 고객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시상은 대상(2명), 금상(4명), 은상(6명), 참가상(약 400명) 등으로 총 1000만원 상당의 SK상품권과 네이버포인트가 지급된다.

한편, 내달 중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고객 가치 혁신을 주제로 고객 참여형 전시를 연다. AI 빅데이터 기반 설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회사의 변화와 기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아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다.

/조민선 기자

LG CNS, 글로벌 AI 신소재 연합 참여

AI 머티리얼즈 파운드리 창립 멤버 선정
반도체·화학·에너지 기업 AX 지원

LG CNS가 국내 소재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지원에 나선다.

LG CNS는 글로벌 AI 신소재 개발 협력체 ‘AI 머티리얼즈 파운드리’ 창립 멤버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영국 AI 스타트업 커스프AI가 운영하는 ‘AI 머티리얼즈 파운드리’는 글로벌 빅테크 엔비디아, 메타 등을 비롯한 48개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신소재 개발 분야 연합이다.

산업용 신소재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서 AI 인프라를 제공한다. 참여 기업들의 고품질 실험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 컴퓨팅 인프라 등을 하나의 에이전틱 AI 플랫폼에 통합해 신소재 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LG CNS는 국내 반도체·화학·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신소재 발굴 기업들을 대상으로 커스프 측이 운영하는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지원한다. 이들이 고가의 연구장비나 대규모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글로벌 연구 생태계를 활용해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들이 해당 플랫폼에 우수한 열안



LG CNS 본사 전경.

/LG CNS

정성을 지닌 화합물, 탄소 포집 효율이 높은 소재 등 원하는 물질 개발을 위한 조건과 특성 등을 입력하면, AI가 학습한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방대한 양의 후보 물질을 생성하고 검증한다.

플랫폼에 적용할 소재 데이터 처리부터 검증 결과 해석, 플랫폼 운영, 유지보수까지 실행하기 때문에 고객사는 별도의 AI 전담 인력 없이도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상시 수행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을 활용한 핀란드 화학기업 케미라는 수년 걸리던 개발 기간을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약 300조 개의 분자구조를 탐색해 20개의 신소재 후보를 도출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조민선 기자

AXZ, ‘다음’으로 간판 바꾸고 AI포털 승부수

업스테이지 인수 뒤 사명 변경 추진
‘솔라’ 접목해 차세대 검색 구축
AI 모드·분야별 에이전트 선택

포털 다음 운영사 AXZ가 사명을 ‘다음’으로 변경하며 인공지능(AI) 포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한때 국내 대표 포털이었던 ‘다음’ 브랜드를 다시 전면으로 내세워 AI 검색과 에이전트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사명 변경을 넘어 AI 시대 브랜드 재정립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AXZ는 사명을 ‘다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카카오톡에서 분사하며 AXZ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업스테이지 인수 이후 AI 포털 전략에 맞춰 다시 ‘다음’을 기업명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의 핵심을 브랜드 가치에서 찾는다. AXZ는 업계 외에는 인지도가 거의 없지만, 다음은 1995년 서비스를 시작해 30년 가까이 국내 인터넷을 대표해온 브랜드다.

AI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을 키우기보다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활용하는 편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 포털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다음’의 미래형 사무공간 이미지.

분석이다.

사명 변경은 AI 전략과도 맞물린다. 업스테이지는 지난 5월 AXZ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Solar)’를 다음 검색과 콘텐츠 데이터에 접목해 차세대 AI 포털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이용자의 질문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고 답을 제공하는 ‘컨텍스트 AI’가 핵심이다.

실제 다음은 이달 AI 요약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연내 대화형 검색인 ‘AI 모드’와 쇼핑·여행·맛집·부동산 등 분야별 AI 에이전트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AI가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를 대신해 정보를

탐색하고 종합하는 형태로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의 재도약은 국내 AI 검색 경쟁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는 AI 탭을 앞세워 검색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에이전트를 연내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자체 AI 서비스와 카니니를 기반으로 AI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다음은 업스테이지의 AI 모델과 30년간 축적한 검색·카페·블로그 데이터를 결합해 AI 포털 시장을 공략한다. 특히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시대에는 검색 품질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역시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XZ’보다 ‘다음’이라는 이름이 이용자 접근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훨씬 강력한 자산이라는 평가다.

IT업계 관계자는 “포털 시장은 사실상 네이버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AI가 검색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경쟁 구도도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며 “‘다음’ 브랜드를 다시 전면으로 내세운 것은 과거 포털의 부활이 아니라 AI 시대 새로운 포털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갤럭시 Z8 사전예약 과장광고 주의

방미통위, 고액 지원금·경품 유인 경고
판매자 신분·계약 내용 확인 당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Z8 시리즈’의 사전예약 기간 동안 일부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 제공 등에 대한 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기간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방미통위는 “일부 유통점에서 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전예약 알람 등을 통해 높은 지원금을 약속하거나 각종 경품 제공을 안내하며 사전예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예약 시에는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판매자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올해 5

월부터 유통 종사자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이용자는 유통점에 방문할 때 사전 승낙서와 유통 종사자 신분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과 경품 제공 내용 등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빙자료이므로, 반드시 교부 받고 보관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를 기재해 이용자가 받아볼 수 있다. 현재 통신3사 중 SK텔레콤이 시행 중이다.

사전예약 기간 및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가 추진하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을 통해 피해 접수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내일부터 SK·삼성 실적발표… ‘반도체 피크아웃’ 분수령

내일 SK하이닉스 실적발표 앞뒤
매출 279%, 영업이익 597% 급등 예상
삼성전자, 긍정적 잠정실적 발표
매출 171조, 영업이익 89조 ‘최대실적’
美 빅테크 AI 투자 지속여부 ‘관전’
중동발 지정학적 우려 해소도 필요

중동지역의 긴장 확대와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체들의 2분기(3~6월) 실적 전망치는 일관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실적 전망치를 연일 올리며 ‘30만 전자, 200만 하이닉스’ 주가를 다시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오는 29일과 30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수치를 내놓을까.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코스피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란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 **사상 최고 실적 쓰는 ‘삼전닉스’**

증권가와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로 거둘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관심은 영업이익이 전 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서느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여부가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엔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3조6448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오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는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8.6% 증가한 84조1693억원, 영업이익은 597.3% 뛴 64조2448억원으로 예상됐다.

앞서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171조원, 영업이익은 89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한 상황이

다. 사업부문별 세부 실적은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강력한 저점 매수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글 AI 생태계의 최대 수혜주’라며 목표주가 60만 원을 유지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주가 420만 원을 유지했다.

◆ **美 빅테크 AI투자에 코스피 운명 달려**

시장에서는 반도체 주가와 코스피 반등의 걸림돌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지속 여부에서 찾는 분위기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AI발 수요 호조로 인한 매출 증가보다는 설비

투자 확대에 의한 현금흐름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하이퍼 스케일러의 핵심 사업 실적 호조와 주가 반등, 토론투 비용 지수 상승과, 매크로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고, 유가가 낮아지면서, 미국채 금리가 하락 안정화를 보여야 한다”며 “고금리 환경에서 대규모 채권 발행은 이자 비용 부담과 신용 위험을 상승시키면서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기존 1800억~1900억달러에서 1950억~2050억달러로 올려잡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수주잔고는 1분기 4620억달러에서 5140억달러로 확대됐으며, 영업이익률은 35.6%로 급증했다. 투자 확대의 근거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알파벳의 호실적과 가이던스는 7월 반도체 조정론을 야기했던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여전히 공급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AI 패권 경쟁도 변수로 꼽힌다.

애플은 중국산 메모리 도입을 요구한 반면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고, 엔비디아는 중국 AI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개방형 AI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부의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4일(현지 시각)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배스턴 재무장관 등을 직접 만나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 등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애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메모리 시장 경쟁 구도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 반도체의 ‘다크호스’로 거론되는 창신메모리(CXMT)의 증시 등판도 코스피에 부담이다. 글로벌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노무라의 도니 텅 애널리스트는 투자 노트에서 CXMT에 대해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116위안(약 2만5017원)을 제시했다. 공모가 대비 1239% 높은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창신메모리, 상장 첫날 470% 폭등… 시총 1위로 ‘썩충’

상하이 증시서 49위안에 마감
시가총액 3조2800억위안 기록
공모 청약 경쟁률 치열… 흥행 기록

중국 최대 DRAM(DRAM)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단숨에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 기대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창신메모리는 이날 상하이 증시에서 49.00위안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3조 2800억 위안으로 1위에 올랐다. 중국공상은행(ICBC)은 2위로 밀려났다.

창신메모리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최대 666억위안을(14조4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는 올해 아시아 증시 최대 IPO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로고.

OO이자 중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 본토 증시 IPO 기준으로 2010년 중국농업은행(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상장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평가된다.

공모 흥행도 기록적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경쟁률은 212대 1을 기록했고, 청약 주문 규모는 7조700억위안(약 1532조원)에 달했다.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도 462.85대 1

에 달했다.

2016년 설립된 창신메모리는 중국 최대 DRAM 업체로 생산능력 기준 세계 4위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을 주요 경쟁사로 꼽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CXMT 상장으로 중국 메모리 업계가 ‘기술 추격’에서 대규모 생산능력 확보로 역사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봤다.

산업 애널리스트 마지화는 CXMT의 부상으로 중국 DRAM 업체가 세계 선두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 애널리스트는 CXMT가 이 자금으로 12인치 DRAM 웨이퍼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와 생산능력 확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이가 CXMT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DRAM ‘톱3’에 도전하고 세계 시장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액 기준 세계 DRAM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38%)·SK하이닉스(29%)·마이크론(22%)이 1~3위였지만 CXMT의 점유율도 8%로 올라왔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CXMT 점유율은 3% 수준이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장기 전망을 두고 엇갈린 시각도 나온다. 리서치업체 모닝스타는 중국 내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지만, 첨단 메모리 기술에서는 글로벌 선두 업체와의 격차가 여전히 커 AI 시장 점유율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9.6조 ↑… 업계 최대규모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을 약 9조6000억원 늘리며 금융권 사업자 가운데 가장 큰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 증가액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상반기 누적 적립금 증가 규모는 14조원에 달했다.

27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 기준 올해 2분기 전체 퇴직연금 시장 적립금은 45조143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증가액은 9조5799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21.2%를 차지하며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적립금 증가액은 약 14조원으로 연초 대비 36.5% 늘었다.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약 4조원, 2분기 약 10조원의 적립금이 증가하며 두 분기 모두 금융권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장기간 이어온 자산배분 전략을 꼽았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 혼합자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6월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전체 연금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은 80조 8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객 운용수익은 24조6071억원에 달했다.

회사 측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을 위해 로보어드바이저(RA)와 MP구독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 자산관리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연금 고객가치제고 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콘텐츠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 STO 제도 시행 앞두고 전담조직 신설

‘디지털자산 테스크포스’ 출범
사업모델 발굴, 추진전략 마련

NH투자증권이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관련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2일 디지털자산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실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테스크포스(TFT)’를 출범시켰다.

TFT는 강민훈 디지털사업부 대표가 팀장을 맡고 상근 팀원 1명과 비상근 팀원

6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서비스 혁신과 자본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퀵윈(Quick-Win)’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제도 상 허용되지 않은 정형증권 기반 토큰증권 발행에 대해서도 기술검증(PoC)을 추진하며 향후 발행 역량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TFT를 신설했다”며 “디지털자산은 향후 자본시장의 거래와 금융서비스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사 차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해 사업 기회를 검토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맞춰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STO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토큰증권 제도와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년 2월 4일 시행되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비롯해 발행·유통·결제 등 세부 제도가 담길 예정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증권사들의 토큰증권 사업 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

정부, ‘천연가스’ 에너지 안보 강화 민간 비축 확대·AI 기반 위기예측

산업부, 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
공급망 체계 개편·인프라 투자 확대
‘수급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예정

우리나라의 총 천연가스 수요가 오는 2038년까지 연평균 약 0.94%씩 감소해 4100만 톤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전원구성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참여형 비축체계를 다지고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13년간(2026~2038년)의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도입·수급 관리, 공급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담은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총 천연가스 기준수요는 올해 4591만 톤에서 2038년 4100만 톤으로 줄어든다. 용도별로는 가정·산업체 등에서 쓰는 도시가스용 수요가 올해 2356만 톤에서 2038년 2816만 톤으로 연

평균 1.50%씩 성장하는 반면, 발전용 수요는 같은 기간 2235만 톤에서 1284만 톤으로 연평균 4.51%씩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구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발전용 수요의 극심한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관리 수요’를 별도로 도출했다. 이에 따른 총 수요는 2038년 4767만 톤으로 연평균 0.01% 수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수급관리수요를 토대로 인프라 확충과 중장기 도입 계약을 설계할 방침이다.

다만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한 가스 발전 수요 변동분은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가스공사 등 공공 중심이었던 기존 비축체계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민간 기업의 참여를 넓히기로 했다. 새로 기지를 짓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공과 민간의 가스 도입·재고 정보를 한눈에 관리하는 ‘천연가스 수급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AI 기반 위기 예측 시뮬레이션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가격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 노출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 기간계약 비중을 늘리고 유가, 가스 가격 등 다양한 가격지수 포트폴리오를 짜 가격 급등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대폭 이뤄진다. 정부는 민간까지 저장탱크 증설 등을 통해 2038년까지 최대 887만 톤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도시가스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64km에 달하는 주배관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관망 매설이 어려운 소외 지역에는 주민 수요와 경제성을 따져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청다오국제맥주축제 행사장 내 K-푸드 편의점 모습.

/aT

aT, 청다오맥주축제 참가… K-푸드 소개

라면·과자·소주 등 제품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청다오국제맥주축제’에 참가해 이른바 ‘팝업 편의점’ 운영을 통한 K-푸드 알리기에 한창이다.

aT는 오는 8월15일까지 열리는 청다오국제맥주축제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K-푸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다오국제맥주축제는 세계 3대 맥주축제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 행사다.

aT는 이번 축제에서 국내 식품기업 38개사와 함께 라면과 과자 등 ‘K-안주’, 소주를 활용한 ‘K-소맥’, 속취해소제품, 아이스크림·음료 등 총 209개 제품을 홍보·판매한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중국의 여름 축제를 상징하는 청다오국제맥주축제에서 K-푸드를 널리 알리겠다”며 “향후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식

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

국내 농업과 기업, 지역이 다 같이 발전하는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생’이란 동반자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농업·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플랫폼을 가리킨다. 단순한 국산 농산물 구매를 넘어, 제품화부터 판로개척·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프로젝트다. 농가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성과를 낸다. 이는 또 지역에 일자리 및 새로운 활력을

더해, ‘본인과 상대방 모두 이익 보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과 식품·외식·유통 분야 기업 관계자, 생산자, 지방정부 등이 참석했다.

송미령 장관은 “상생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일이 아니라, 농업의 좋은 원료에 기업의 기술과 유통망을 더해 서로에 필요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식품기업뿐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과 청년 농업인·창업가까지 각자의 강점을 보태도록 연결하고, 좋은 제안이 실제 제품과 판로, 일자리로 이어져 더 큰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남, 9월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개최

기부 마라톤… 4500명 선착순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남)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뜻깊은 기부 마라톤 대회를 연다.

한남은 국민 기부 마라톤인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오는 9월 12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7

일 밝혔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주최하고 한남이 공식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5km와 10km 두 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참가 모집은 이날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총 450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대회 참가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고효율 가전 기기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미래차 ‘상생형 R&D’ 사업 본격 추진

완성차-부품사 생태계 직접 연결
국산화 등 3개 과제 240억 지원

정부가 미래자동차 핵심 부품의 공급망 지원과 기술 확보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과 국내 부품업체를 기획 단계부터 하나로 묶는 ‘상생형 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무너지는 부품기업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해외 독과점 부품을 내재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완성차 수요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계 협력 R&D 과제 협약식(MOU)’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된 ‘생태계 협력 R&D’는 완성차 기업의 실제 양산 계획에 맞춰 부품업체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도록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과제 기획부터 기술 개발, 실차 검증, 그리고 최종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완성차와 부품사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긴밀하게 협업한다. 정부는 상용차 액추에이터 국산화 등 선정된 3개 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3년간 80억 원씩, 총 24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개 과제는 오는 2029~2030년 완성차 양산 라인에 즉시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선도 부품기업의 독과점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대형 상용차용 액추에이터’를 국내 부품기업과 손잡고 개발한다. 개발이 완료되는 2029년부터 트럭과 버스 등 실제 양산차에 적용해 공급망 자립을 이룬다는 계획

이다. KG모빌리티(KGM)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차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차종 확장형 원통형 셀 배터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차량 개발 기간과 비용을 낮추고, 2030년부터 양산차에 적용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점차 강화되는 국내외 배출가스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배출 시스템인 ‘LPG 직분사 방식(LPDi) 하이브리드 SUV’ 개발에 나선다. 부품기업이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하면 2029년부터 양산 라인에 투입된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금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스마트화로 미래차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라며 “미래차 전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완성차, 부품사가 함께 ‘원팀’이 돼 생태계 차원의 선제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농식품부, ‘우분 고체연료’ 기술개발·사업화

5년간 다부처 R&D 298억 투입

그간 농경지 과잉 살포로 하천 녹조와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던 가축분뇨(우분)가 발전소와 농가 보일러를 돌리는 친환경 고체연료로 탈바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서울 중구 씨앗원 서울역점에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8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수분이 많은 우분을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건조하는 저비용 공정을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별도의 압축·성형 공정 없이도 농업시설 보일러 등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 기술을 확보해

농가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렇게 확보된 기반을 바탕으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과 ‘오염방지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을 혼합해 발열량 3500kcal/kg 이상의 고품질 고체연료를 하루 15톤(총 4500톤) 규모로 생산하는 실증 시설을 구축한다. 나야가이를 330MW급 상용 발전설비 및 4MW급 열병합발전용 보일러에 적용해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장고와 고용이, 공공부문 캐릭터 본선 진출

장애인고용공 2년연속 본선 경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대표 캐릭터인 ‘장고와 고용이’가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본선 무대에 올랐다.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페스티벌에는 전국 70여 개의 대표 공공 캐릭터가 본선에서 경쟁한다.

장고와 고용이는 2022년 탄생한 공단

대표 캐릭터이다. 장애인 고용 정책과 비전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아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종 수상작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투표는 다음 달 21일 오후 6시까지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하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폭염 전면전… 서울시, 쉼터 4000곳 운영·야외작업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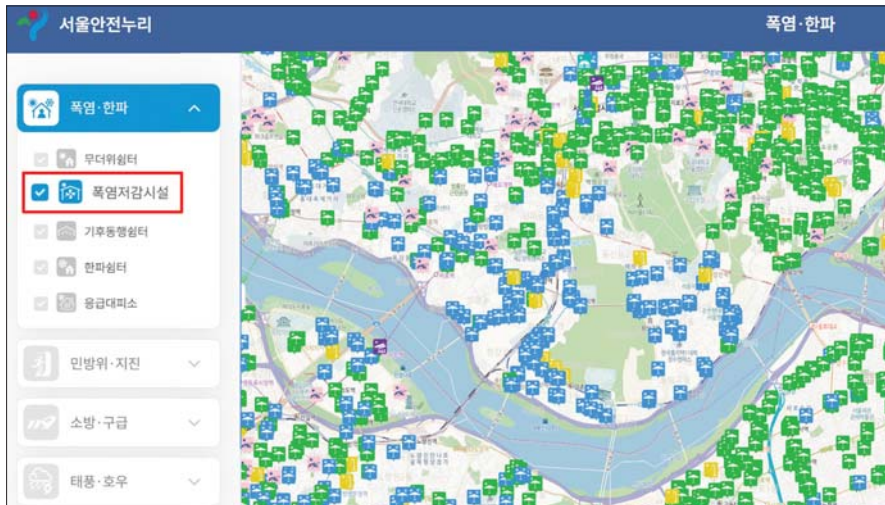
노숙인·쪽방주민 대피공간 가동
노동자 쉼터·얼음물 지원하고
도로 물청소 하루 6회로 확대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이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취약 어르신 약 5만명에게는 매일 또는 격일로 안부전화가 간다.

서울시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와 무더위쉼터 4000여곳 운영 등을 포함한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에는 지난달 18일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지난달 29일과 이달 10일, 23일 등 네 차례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지난 24일 기준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은 모두 12일이다.

시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응급구호반과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노숙인 무더위쉼터 11곳과 쪽방촌 무더위쉼터 8곳, 밤다위 대피소 6곳을 마련하고 구호물품과 식수를 제공한다. 방문간호를 통해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서울안전누리 폭염저감시설 안내도

/서울시

건강 취약계층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관리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취약 어르신 약 5만명에게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전화한다.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핀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에너지바우처를 연계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19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원 늘었다. 여

름철 에너지바우처는 7~9월 전기요금에 자동 적용된다.

건설공사장과 공공일자리 사업장, 환경미화 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폭염경보 때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멈춘다.

건설공사장에서는 휴게시설 운영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교육 실시 상황을 확인한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서는 쉼터 30곳을 운영한다. 7~8월에는 일부 쉼터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얼음물 약 10만병을 지원한다.

시민이 생활권 안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에 무더위쉼터 4000여곳도 운영한다. 지하철 1~8호선 지상 21개 역에는 '동행 쉼터' 40곳을 운영한다.

폭염특보 기간에는 자치구 청사를 24시간 개방한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청사를 사용 중인 강북구는 청사 공간이 협소해 응급대피소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시설도 확대한다. 시청역~송례문 등 주요 구간에 설치된 쿨링로드는 신규 구간을 포함해 19곳, 총 5.67km로 늘린다. 쿨링포그는 기존 187곳에 53곳을 추가하고, 횡단보도와 광장, 공원 등의 그늘막도 확충한다.

야외 무더위 대피공간인 '해피소'는 광

화문광장과 도봉구방학사계광장 등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이를 모두 14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 물청소도 늘린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 2163km 구간에 물청소차 199대를 투입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하루 1~2회 물청소를 실시한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1곳과 연계해 운영한다. 소방구급대와 펌블런스에는 응급처치 물품을 비치하고, 쪽방촌과 복지관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며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고,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진학상담 늘린다

잠실학생체육관서 2040명 상담
현직 교사가 대입 지원 전략 제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시행에 맞춰 공교육 진학상담을 확대한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대면상담 2040명과 화상상담 600명 등 수험생·학부모 총 2640명에게 무료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면서 민간 입시업체의 학생부 활용에도 제약이 생겼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직 교사를 활용한 상담과 입시자료 제공을 확대해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와 진학 정보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수시 대비 집중상담주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운영된다. 서울 지역 고3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에게 1대1 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교육 썸TV'에 공개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분석·지원전략 영상

/서울시교육청

상상담을 제공한다. 대학진학지도지원단과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들이 인문·자연계열과 의약학, 특성화, 예체능 등 계열별 지원전략을 상담한다. 신청은 8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11시까지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대면상담인 '수시 대비 1대1 특별진학

상담센터'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상담 대상은 지난해 1500명보다 540명 늘어난 2040명이다. 신청은 지난 13일 마감됐다.

교육청은 진로 탐색과 고교 과목 선택, 대학 지원전략을 연계해 상담한다. 이를 위해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 114명과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교사 100명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상담에는 '썸(SEN)진학 교사용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수시모집에 대비해 자료집 4종과 온라인 동영상 12종, 오프라인 설명회 영상 5편도 제작했다. 자료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과 유튜브 '서울교육썸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용 '썸진학 나침판' 웹과 앱에서는 진로 탐색과 성적 관리, 과목 선택, 대학별 전형 정보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년과 시기에 맞는 진로·진학 상담을 공교육 안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6곳 선정

경희대·전주비전대 '대상'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창업, 지역 정착을 지원한 우수대학 6곳을 선정했다. 일반대 부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을 단계별로 인증하고 이를 취업에 활용하도록 한 경희대학교가 대상을 받았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2곳과 우수상 4곳을 선정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대 부문 대상은 경희대, 전문대 부문 대상은 전주비전대가 받았다. 우수상에는 강원대와 경성대, 충남대, 경북대가 선정됐다.

경희대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인 'KHU-PASS'를 도입했다. 한국어와 진로 설계, 글로벌 경험,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의 이수 결과에 따라 유학생의

역량을 단계별로 인증하고, 관련 정보를 이력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로 발급했다. 디지털 배지는 학기당 185건 발급됐으며, 관련 프로그램 참여 건수는 학기당 196건에서 527건으로 늘었다.

다른 수상 대학의 주요 사례는 ▲전주비전대(해외 새만금 한글학과와 한국어·문화 사전교육, 지역 정주 프로그램 운영) ▲강원대(지역기업 등과 연계한 실무교육과 인턴십을 통해 19개 기업과 유학생 27명 연결) ▲경성대(부산시·지역기업 43곳 등과 협력해 취업박람회와 한국어·사회통합 교육 운영) ▲충남대(취·창업 교육부터 기업 실무실습과 채용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경북대(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 산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취업과 정주를 지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사례를 대학 현장에 확산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창업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산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로림만,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인정

천혜의 해양 생태계를 간직한 충남 가로림만의 서산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대상지인 가로림만이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공인받으면서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안이 최종 의결돼 서산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2021년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이번엔 서산갯벌과 전남 여수·고흥·무안 갯벌이 추가됐



가로림만 갯벌 전경. /충남도청 누리집 갈무리

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산갯벌이 생물다양성과 이동성 조류의 먹이터이자 중간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서산갯벌을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생산적인 갯벌 생태계 가운데 하나이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부산시, 해양수도전략실 신설로 미래 준비

북극항로·투자유치 총괄

부산시는 민선 9기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도 전략을 총괄하는 해양수도전략실을 신설한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연계해 북극항로 개척과 국제 해양협력, 투자유치 기능을 통합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양분야 정책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해양수도전략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조직 직급도 상향 조정한다.

해양수도전략실은 경제부시장 산하에 배치된다. 경제정책실과 AI산업혁신국, 신공항국 등과 함께 부산의 미래 성장 전략을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운영된다. 산하에는 북극항로추진과와 해양수도세일즈과를 둔다.

북극항로추진과는 북극항로 개척 종합계획 수립과 해양수산부 협력, 시범운항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전담한다.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부산시

도 전담 조직을 통해 정책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도세일즈과는 해외 주요 해양도시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추진한다.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넓히고 국제 해양행사 유치 전략도 함께 밀어 부산의 국제 해양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산업 투자 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이 해양수도 실현과 민생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실행 중심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가동되면 정부 정책과의 연계는 물론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클러스터 조성에도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색다른 감각의 이머시브 뮤지컬 전 세계 최초 그랜드 오픈

뮤지컬

숲속

100

총자리집

©Toshio IWAI / KASEI SHUPPAN

2026. 7. 3(금) ~ 8. 17(월)

성균관대학교 대극장 새천년홀

팝업·상설관 확대… 백화점 3사, K-브랜드 해외 진출지원

국내시장 성장 둔화 돌파구 모색
롯데, 수출서 현지 입점 등 뒷받침
신세계, 연간 10개 이상 팝업 추진
현대, 일본에 첫 대형 매장 개점

백화점업계가 해외 현지에서 K-브랜드를 알리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유통시장의 성장 둔화와 출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27일 <메트로신문 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백화점 3사 롯데·신세계·현대가 해외 현지에서 팝업 스토어를 꾸려 K-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유망 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플랫폼 '롯데백화점 넥스트랩'을 론칭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를 발굴해 수출 통관부터 인테리어, 마케팅, 현지 매장 입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트남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팝



오모테산도 더현대글로벌 플래그십스토어 고객들 줄서는 모습.

/현대백화점그룹

업을 시작으로 연내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 복합쇼핑몰로 영역을 넓히고, 향후 상설 K-패션 전문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넥스트랩을 '상설형 K패션 팝업 전문관'으로 삼아 해외에 '롯데백화점 넥스트랩'이라는 이름의 K패션 전문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규 매장 형태의 상설 팝업 전용관으로 연간 수십 여 개 K패션 브랜드 팝업을 지속해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신세계백화점은 글로벌 리테일 플랫폼 '신세계하이퍼그라운드'를 통해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태국 방콕 시암 디스커버리 팝업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 한류백화점, 도쿄 이세탄백화점, 프랑스 파리 프랑탕백화점 등 세계 주요 거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잇달아 선보였다는 구상이다.

크랩스 스케어, 태국 방콕 센트럴월드 등에서 패션·뷰티·식음료(F&B)를 아우르는 쇼케이스를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대만과 유럽, 북미 시장으로도 협력을 확대해 연간 10개 이상의 해외 팝업을 개최한다는 목표다. 향후에는 북미 시장 등 협력 범위를 넓혀, 국내 브랜드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는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콘텐츠 수출 플랫폼 '더

현대글로벌'을 통해 K-문화를 알리고 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일본에서 더현대 글로벌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함께 온라인 채널을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두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일본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 팝업을 시작으로 오사카, 나고야 등지로 거점을 넓혀온 현대백화점은 최근 도쿄 명품 거리 오모테산도에 국내 백화점 최초로 해외 첫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다. 패션과 뷰티, F&B, IP 콘텐츠를 총망라한 이 공간은 '더현대 서울'의 콘텐츠 운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현지 2030 세대를 공략한다. 현대백화점은 대만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등 중화권 팝업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아시아 주요 거점에 10여 개의 플래그십 매장을 구축할 방침이다.

백화점 3사가 이처럼 K-브랜드 육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국내 시장의 성장성 정체와 신규 출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해외여행 대신 호캉스 늘자 호텔 미식 경쟁

호텔업계 체류형 미식 콘텐츠 강화
고물가·고환율에 국내 휴양 수요 증가
1분기 국내여행 경험률 54.5% 기록

고물가와 고환율, 항공권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해외여행 대신 호캉스나 캠핑 등 국내 휴양을 선택하는 이른바 '유턴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짧은 휴가를 효율적으로 즐기려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도심형 호캉스와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국내여행 경험률은 54.5%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48.4%) 대비 6.1%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가성비와 고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택적 프리미엄' 소비 경향이 확산함에 따라, 호텔업계는 객실 중심의 판매 전략에서 벗어나 미식·웰니스·문화 프로그램 등 체류형 콘텐츠를 강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여름 시즌을 맞아 한정 메뉴, 보양식, 셰프 협업 등을 앞세운 식음(F&B) 콘텐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호텔 및 프리미엄 여가시설 컨세션 사업을 전개하는 본푸드서비스는 계절 식재료 기반의 시즌별 미식 큐레이션을 통해



본푸드서비스가 전국 주요 호텔 컨세션 뷔페 레스토랑에서 선보이고 있는 여름 시즌 한정 신메뉴 트로피컬 시트러스 브리즈.

/본푸드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올여름 본푸드서비스는 전국 주요 호텔 컨세션 뷔페 레스토랑 5개점(롯데시티호텔 씨카페 명동·대전·제주, L7 플로팅 명동·해운대)에서 여름 한정 신메뉴 '트로피컬 시트러스 브리즈'를 선보였다. 망고, 용과, 청귤, 라임 등 열대 과일과 시트러스 식재료를 활용해 휴양지 감성의 청량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푸드서비스는 호텔 뷔페를 단순 식사 공간이 아닌 계절 테마와 지역 고객 특성을 반영한 '체류형 미식 콘텐츠'로 보고, 입지와 고객층에 맞춘 메뉴 개발과 운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소규모 스몰웨딩, 돌잔치 등 프라이빗 연회 수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골프존카운티 및 SM그룹 레저 계열사인 탑스텐 리조트 동강시스타 등 프리미엄 레저시설로 컨세션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주요 럭셔리 호텔들도 저마다 차별화된 미식 프로모션을 앞세워 여름 휴가객 유치에 나섰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실험실 콘셉트의 'H. Bar'에서 오는 9월 2일까지 여름 시즌 한정 칵테일 코스를 운영한다. 시그니처 칵테일 8종과 페어링 푸드 3종으로 구성되었으며, 바텐더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더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각적인 미식 여정을 제안한다.

웨스턴 서울 파르나스는 숙면, 미식, 웰니스를 결합한 도심 휴식 패키지를 선보인다.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온:데이블'을 통해 자연산 민어, 장어, 삼계탕 등 전통 여름 보양식 뷔페 특선을 제공하며, 얼리버드 객실 할인과 피트니스 클럽 '코스모폴리탄', '웨스턴 클럽' 라운지 혜택을 결합해 휴가철 수요를 공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식신, 전자식권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착수

비토즈와 결제 연동 업무협약
기존 QR 결제 방식 그대로 유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가 투자와 송금 중심에서 일상 결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직장인 전자식권 서비스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적용하는 실증에 나서면서 소액·다빈도 결제 환경에서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식신은 27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비토즈와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에 스

테이블코인 결제를 연동하는 실증(PoC)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직장인들이 점심 식대를 결제하는 전자식권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면 되지만, 실제 거래는 데이터베이스(DB) 기반 잔액 차감 대신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자산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확정된다.

양사는 결제와 가맹점 정산 과정도 함께 검증한다. 거래가 완료되는 즉시 정산 근거 데이터가 확정돼 서비스 운영사와 가맹점이 동일한 거래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기존 POS 단말이나 결제 절치는 변경하지 않고, 승인 이후 이중지불과 부정사용 여부를 검증한 뒤 POS 정산 정보와 연동하는 방식이다.

실증에는 비토즈가 랑네트와 공동 개발한 CPG(Crypto Payment Gateway)가 적용된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ESG위원회 사외이사로 개편

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독립성 강화
내부거래 사전 승인으로 권한 확대

하이트진로가 내부심시기구인 ESG 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쇄신하고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그동안 환경(E)과 사회(S)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ESG 경영의 기틀을 다져왔으나, 상대적으로 거버넌스(G) 부문이 아쉽다는 시장의 평가를 적극 반영해, 거버넌스 분야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한 단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고도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을 갖춘 실질적 통제 기구로 역할을 다하며 거버넌스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경영 감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거버넌스의 인적 구성을 쇄신했다.

기존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구조로 운영되던 ESG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경영진의 이해관계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사내이사를 배제했다. 이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고, 주주 권익과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방증이다.

인적 독립성 확보에 이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도 대폭 확대됐다. 기업 내부의 모든 내부거래는 이제 ESG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푸드, 맛집 협업 HMR 라인업 확대

청담 한우 전문점 '우정'과 협업
전골·특우개장 간편식 2종 출시

고물가로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유명 맛집과 협업한 간편식(HMR)이 식품업계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맛집 협업 제품의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한우 전문점과 손잡은 신제품을 추가 출시하며 관련 라인업을 확대했다.

신세계푸드는 청담동 한우 요리 전문점 '우정'과 협업해 '우정 한우스지된장전골'과 '우정 특우개장' 등 간편식 2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외식 없이도 유명 맛집의 대표 메뉴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려는 소비자 수요를 겨냥했다.

'한우스지된장전골'은 한우 사골육수와 꽃게육수를 바탕으로 된장과 청국장을 더한 전골 메뉴이며, '특우개장'은 사골육수에 소양지와 소홍창, 소곱창 등을 담은 국



우정 특우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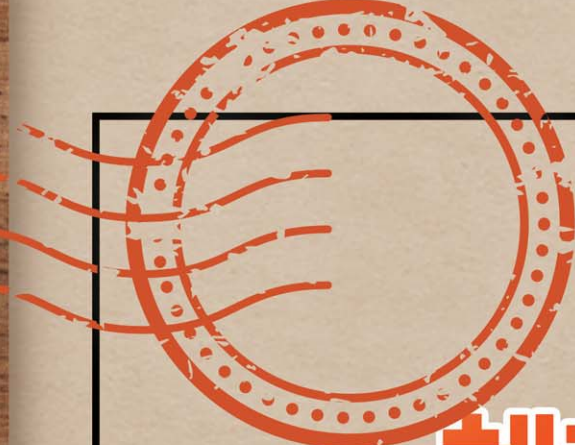
/신세계푸드

물 요리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맛집 협업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선보인 '중앙해장' 협업 제품인 '한우양해장국'과 '한우사태곰탕'은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5만 개를 넘어섰다.

특히 '한우양해장국'은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입점 이후 월평균 약 2만 개가 판매되며 후속 제품 출시로 이어졌다.

/신원선 기자



혜화역 내부 (1번 출구) 숨어있는 '독고'를 찾아라

그를 찾는 순간,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된다.

숨겨진 단서를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비밀 미션을 완수하라.
미션 완료 후, **푸짐한 상품**을 수령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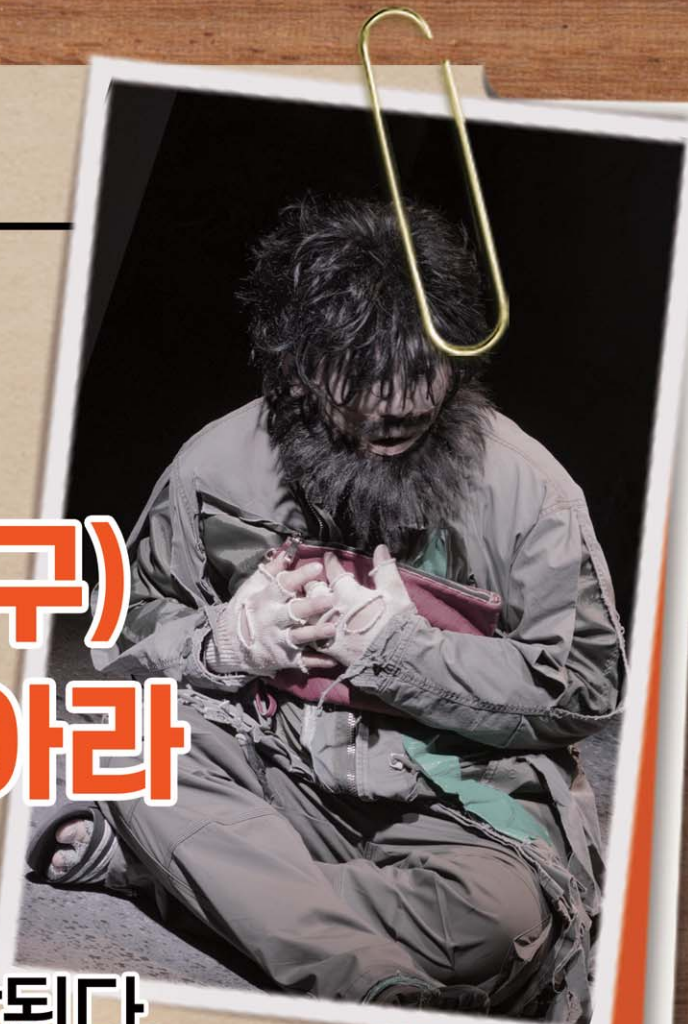
2인 제주 왕복 항공+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배달의민족 4만원 쿠폰

미션 기간 | 9월 말까지

* 본 이벤트는 참여형 이벤트입니다. * 상품은 최종 미션 완료자에 한해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품(5만 원 초과)의 경우 관련 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문의 전화 | 02-332-4902



정몽구 재단 'CMK 앙상블', 세계무대에서 K-클래식 신고식

‘CMK 앙상블 글로벌 프로그램’ 성료
유망주에獨·스위스서 실전 경험 제공

차세대 K-클래식을 이끌 클래식 유망주들이 베르비에에서 세계 무대 신고식을 치렀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독일 베를린과 스위스 베르비에에서 진행한 ‘2026 CMK 앙상블 글로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 무대로 진출할 차세대 한국 클래식 리더를 육성하고, 지원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재단은 2024년 스위스, 2025년 미국에 이어 3년째 문화예술 글로벌 교육을 이어



CMK 앙상블 베르비에 쇼케이스 공연 사진.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오고 있다.

클래식 전공자로 이루어진 CMK 앙상블의 장학생은 13명으로 세계 정상급 교육기관과 음악 축제에서의 실전 경험을

확대하는 데에 프로그램의 중점을 뒀다.

장학생들은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페라 스튜디오 마스터클래스와 한스 아이슬러 음대 레슨 등을 통해 기량을 다졌다.

프로그램의 정점은 지난 21일 베르비에 시네마에서 단독으로 70분간 진행된 ‘CMK 앙상블 쇼케이스’ 공연이었다. 이날 공연에는 베르비에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과 현지 음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무대를 관람했다.

공연을 지켜본 관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실력 있는 신예들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재단은 장학생들의 국제 무대 경험에 해외 오케스트라·오페라단 진출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후속 지원을 이어가며, 차세대 한국 클래식 리더 발굴·육성 모델을 지속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metroseoul.co.kr



원제철 국제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선임

2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국국제물류사업협동조합은 최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 목적,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정관을 채택하고 이사장과 주요 임원을 선출했다. 초대 이사장은 원제철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대표 겸 한국국제물류협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맡았다.

/한국국제물류사업협동조합



부동산원, 토지보상제도 학술세미나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서울권역본부에서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



HJ중공업, 여자프로골프단 창단

HJ중공업이 한국토지신학 여자프로골프단을 인수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골프단을 활용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기업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HJ중공업은 지난 24일 서울 남영동 사옥에서 ‘HJ중공업 골프단’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HJ중공업

LG U+, 오는 10월 소방청과 러닝행사

‘유플러스 119 메모리얼런’ 진행
참가비 전액 순직 소방가족 지원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 소방청과 함께 러닝 행사 ‘유플러스 119 메모리얼런 2026’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고 소방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으로, 순직 소방가족 지원에 전액 사용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순직 소방관의 이름·순직일자가 적힌 배너표를 착용하고 코스를 달리는 방식이다.

/조민선 기자 msjo@

코스 종류는 11.9km, 5km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소방을 상징하는 숫자와 가족·지인이 부담없이 완주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했다.

부대 행사로는 추모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신청 과정에서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에서 내용이 공개 된다.

한편, 지난해 같은 행사를 통해 모인 참가비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 단체 ‘소방가족 희망나눔’에 전달됐다.

오설록, 제주 한남차밭서 차 문화 고도화

복합공간 ‘티 라이브러리’ 공개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차(茶) 브랜드 오설록이 첫잎 재배부터 제조, 한잔의 체험까지 복합해 차 문화를 고도화하고 있다.

오설록은 제주 한남차밭 일대에서 ‘티 라이브러리’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설록은 제주에서 한남차밭, 생산 시설인 티팩토리, 차를 즐기는 티하우스 등을 운영해 왔다. 이번 티라이브러리는 브랜드 역사와 철학을 주제로 꾸며졌다.

도서관의 모습을 구현해 원료 재배 과정, 생산 공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을 중심으로 12개의 서가가 펼쳐지고 방문객은 서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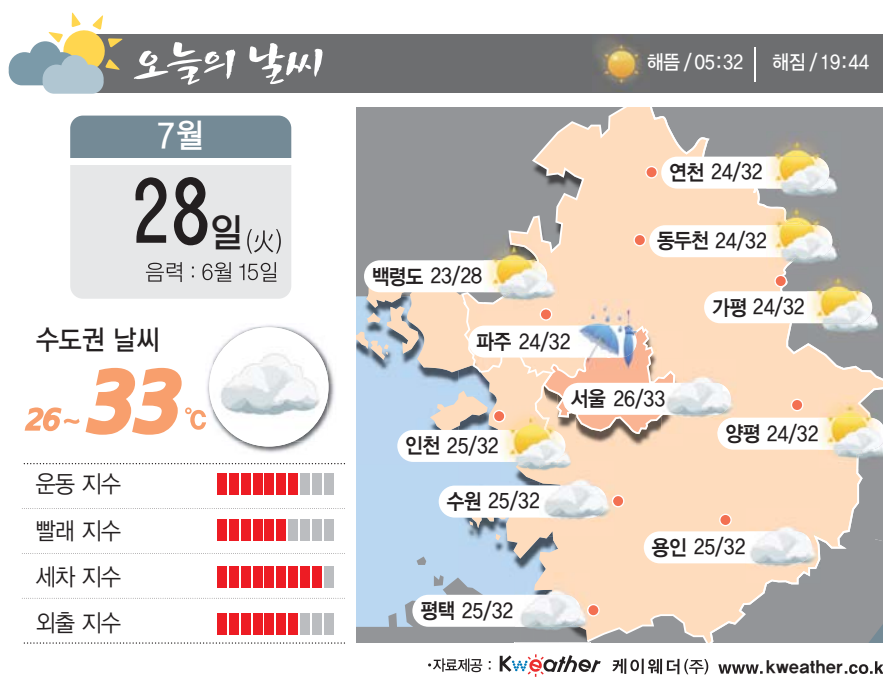
제주 한남차밭 ‘티 라이브러리’에 설치된 호지차 로스팅존.

/아모레퍼시픽

한 전시를 감상하면 된다.

서가를 따라 이동하면 호지차 로스팅존, 시음과 구매를 돕는 시음존, 제품존 등이 이어진다. 특히 호지차 로스팅존에서는 첫잎 로스팅을 비롯해 실제 제조 단계를 볼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NS홈쇼핑, 국내최대 요리경연 참가자 모집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
일반부문 신청… 총상금 1억 규모

NS홈쇼핑은 27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 일반부문 참가자를 모집한다.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북 익산시 합영읍 하림 퍼스트 키친에서 열린다. 총상금 약 1억원 규모의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부문과 가족부문 요리경연을 비롯해 다양한 식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반부문은 참가 자격 제한 없이 2인 1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7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NS홈쇼핑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9월 1일 본선 진출 60팀을 발표한다.

일반부문 본선은 10월 16일 ‘자연의 신

선한 식재료로 만든 밀키트’를 주제로 열린다. 참가팀은 신선한 식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상품성과 편의성, 창의성을 갖춘 밀키트 요리를 선보이게 된다.

가족부문은 부모 1명과 초·중·고 학생 자녀 1명이 한 팀으로 참가하는 방식이다. 참가 신청은 8월 27일부터 진행되며,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주제로 10월 17일 본선 경연을 펼친다. 가족부문 역시 본선에는 60팀이 진출한다.

참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NS홈쇼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NS푸드페스타는 NS홈쇼핑이 2008년부터 개최해 온 식문화축제로, 2022년부터 전북 익산에서 열리고 있다. 요리경연을 중심으로 지역 식품산업과 미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G마켓, 중소셀러 온라인 매출확대 교육

‘매출 부스트 업 클래스’ 진행
G마켓 판매 적용 실무 중심

G마켓이 중소셀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매출 부스트 업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출 부스트 업 클래스’는 중소상공인과 지역 생산자의 온라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신세계 남산연수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50여 명의 셀러가 참석했다.

참석자는 G마켓이 중소셀러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상생페스티벌’ 참여 셀러들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뷰티용품, 디지털기기, 유아동용품, 패션·잡화 등 다양한 분야의 판매자가 참여했다.

교육은 G마켓 판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상품등록 프로그램 소개를 비롯해 중소셀러 맞춤형 마케팅 전략, 스타배송 등 G마켓 주요 서비스 활용법을 주제로 G마켓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강연을 진행했다. 상품별 판매 전략 컨설팅도 함께 제공했다.

G마켓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중소셀러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대면 교육뿐 아니라 판매자 전용 정보 사이트인 ‘G마켓 파트너센터’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활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페스티벌’은 G마켓이 중소상공인과 지역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서현 기자



호반그룹, 佛 전문가 정일영 교수 특강

호반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임직원 대상 여름 명사특강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대현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등 임직원 16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프랑스 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전하며 ‘파리민수’로 이름을 알린 정일영 인하대학교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 초빙교수가 나섰다.

/호반그룹



코스맥스, 2년 연속 ‘소셜아이어워드’ 수상

코스맥스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채널 운영 전략을 앞세워 ‘소셜아이어워드 2026’에서 2년 연속 상을 받았다. 코스맥스는 지난 23일 열린 ‘소셜아이어워드 2026’에서 프로모션 ‘혁신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인스타그램 부문 ‘최고대상’ 수상에 이어 2년째다.

/코스맥스

위풍당당과 ESG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그들의 위풍당당은 영원하지 않았다. 197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은 외부의 경쟁자가 아닌, 미국 기업 '빅3'(GM, 크라이슬러, 포드)와 미국 정부였다. 1973년 오일쇼크로 기름값이 폭등하자 미국 의회는 기업 평균 연비제(CAFE)를 도입했다. 각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평균 연비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맞추도록 강제하고, 미달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수십 년간 막대한 이익에 익숙했던 빅3는 변화를 거부했다. 기업의 가장 강력한 항변은 '일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빅3의 손을 들어주며 연비 기준을 크게 낮춰주었다.

숫자의 후퇴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권을 바꾸어 놓았다. 미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기름값이 쌀 때만 돈을 버는 허약한 경영 체질은 고착화되었다. 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기업은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였다. 그들은 규제를 기술 혁신으로 넘어설 문턱으로 보았다. 오일쇼크 이후 자국의 엄격한 오염 규제에 정면으로 맞서며 엔진과 생산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했

다. 나이가 1997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차인 '프리우스'를 선보였다. 우리 현대자동차도 글로벌 기후 규제라는 시련에 정면 대응하며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내놓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당장의 보호막은 달콤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모두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파도 속에서 시장의 패권은 달라졌다. 최근 우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을 보며, 미국 빅3의 쇠락이 오버랩되는 것은 과한 우려일까.

역사는 '투명성'과 '신뢰'를 확장해 온 과정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축인 시장과 기업, 즉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투명성과 신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 조건이다.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그것은 가장 명확한 '투자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적 시계는 멈춰 있는 꼴이다. 로드맵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은 공급망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루는 '스코프 3(Scope 3)' 공시를 2031년까지 유예한 대목이다. 스코프 3는 단순히 한 기업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스코프 1)나 사용하는 전력(스코프 2)을 넘어,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의 수송,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가장 정밀하게 추적하는 지표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인 한국 기업들에 스코프 3는 기후 리스크의 핵심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법,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 등 전 세계 시장은 이미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스코프 3 공시를 여전히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과 경영 시스템의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는 '선제적 정책'이다. 규제가 아닌 성장의 문턱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리적 시기를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을 끌어들이고 산업을 혁신하는 'ESG의 힘'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의 파도에 국회가 올라타야 할 시간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스코프 3 공시를 현실화하여 우리 기업의 고령을 막아야 한다.

ESG는 잠시 불리다 사라질 유행가가 아니다. 멈춤이 없는 기후 위기 속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이 채택한 새로운 투명성 표준이다. 우리 자본주의에 ESG의 가치를 제대로 포개어, 그 정직하고 투명한 힘을 바탕으로 한국형 ESG 자본주의'를 세워야 할 때다. 우리 기업의 '위풍당당'은 바로 그곳에서 출발할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플랫폼 시대, '블록버스터'의 한 방



기지 수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김부장'이 시청률 23.0%라는 기록을 세웠다. 참 오랜만에 느껴본 '본방사수'였다. 주말 밤 10시만 되면 TV 앞으로 모여들어 손에 땀을 쥐고 몰입하는 그 긴장감. 다음 날 출근 길이나 점심 시간, 만나는 사람마다 '어제 김부장 봤냐'는 시끌벅적한 대화. 원할 때 정주행할 수 있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라지만 정해진 시간에 다 함께 뚜껑을 열어보는 카타르시스는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취재 현장에서 매일 접하는 고민이 겹쳤다. 바로 플랫폼 기술과 신약개발의 관계다.

최신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플랫폼 기술이다. 하나의 기반 기술을 확립하면 여러 표적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연구 개발 실패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은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를 갖췄다. 실시간 방송을 대신해 흥행하고 있는 OTT 역시 수많은 콘텐츠를 담아낸 안정적인 창구다.

하지만 산업의 본질과 시장의 판도를 단순히 바꾸는 건 결국 신약개발 임상 성공이다. 단일 신약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면서도 위험하다. 그러나 임상 3상을 끝낸 성공하는 순간, 환자 삶을 바꾸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력한 한 방이 된다.

OTT 범람 속에서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우리가 왜 진짜 신약개발이 주는 쾌감을 포기할 수 없는지 보여줬다. 또 시청률로 확인된 막판 화력의 열기는 후속 드라마와 동시간대

경쟁 드라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편의 메가 히트 작품이 집집마다 TV를 켜게 하자 주말 안방 극장에 다시 새로운 활력이 들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제약·바이오 산업도 다르지 않다. 플랫폼 기술이 미래 첨단 의약품 개발에 적극 활용되지만 산업을 궁극적으로 지탱하는 힘은 하나의 블록버스터 약물 가치에서 나온다. 결정적인 신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다시 후속 R&D 투자를 계속하는 선순환 구축은 제약 산업 본연의 소망이기도 하다.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대 그릇에 신약이라는 핵심 콘텐츠를 담아내고 그 가치 시슬이 전체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지속가능성. 무더운 여름밤 우리를 매료시켰던 김부장이 남긴 후일담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처럼 들리는 이유다.

/mlee23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8일 (음 6월 1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유익한 하루가 됩니다. 60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72년생 기운이 없고 무언가를 해도 의욕이 없습니다. 84년생 반가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업무 등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1년생 자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세요. 73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85년생 주변 사람을 관찰하도록 하세요.



로랑씨

50년생 첫만남의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62년생 사람들로부터 신뢰 받습니다. 74년생 업무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86년생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날입니다.



도끼

51년생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63년생 머리회전이 잘 되는 날입니다. 75년생 도전정신이 왕성해 지는 하루입니다. 87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나 신제품개발을 하면 좋습니다.



조

52년생 최근에 만난 아성을 조심하세요. 64년생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76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화를 면합니다. 88년생 사방에 고동과 어려움이 펼쳐졌습니다.



뽕

53년생 끈기있게 기다려보세요. 65년생 노력을 해 보아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77년생 큰 성과를 올리기 힘든 하루입니다. 89년생 앞으로 나아갈수록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

54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세요. 78년생 회사에서 부하직원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90년생 상대방이 소홀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양

55년생 타인이 보는 모습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67년생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중요합니다. 79년생 사기를 조심하세요. 91년생 환상속에 살고 있는자들의 말은 신뢰감 이 없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68년생 자신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80년생 매사에 조심하게 행동하세요. 92년생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을 할 때입니다.



닭

57년생 쉽게 말했다가 쉽게 후회하게 됩니다. 69년생 누군가를 추천해주는 자리가 생깁니다. 81년생 인생의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93년생 뒤에서 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

58년생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70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82년생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운입니다. 94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돼지

59년생 화해를 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71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83년생 안으로 손해와 좌절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95년생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김상회의四季

금적금왕, 핵심을 찾아야

중국 병법 36계 가운데 금적금왕(擒賊擒王)이라는 계책이 있다. 뜻을 풀 어보면 '도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를 먼저 잡으라'라는 뜻이다.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병사가 싸우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움직이는 것은 지휘관이다. 병사가 많아도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패한다. 병법에서는 적의 말단 세력을 상대하는 것보다 핵심 지휘자를 제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지혜로 연결된다. 일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피로만 쌓이는 경우가 많다. '지휘관'은 가만히 두고 '전쟁'이 병사들'과의 싸움만 신경 쓰기 때문이다.

지혜는 가장 먼저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 핵심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많은 사람은 증상만 해결하려고 한다. 과곤하면 영양제를 먹고,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찾고, 체력이 떨어지면 보약을 먹는다. 근본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짜 해결책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두머리를 잡는 일이다. 핵심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금적금왕은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 집중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고민의 배후에는 대개 한두 개의 핵심 원인이 숨어 있다. 핵심을 발견하는 순간 복잡했던 문제들은 의외로 풀리기 시작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6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할일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판

결란스도쿠110

종란스도쿠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9	8	2	1	9	7	2
9	2	8	7	9	2	1	8	6
2	1	7	6	8	9	9	2	8
7	6	1	2	2	9	8	9	8
2	9	2	8	7	6	9	1	8
9	8	8	9	1	6	7	2	2
8	7	9	2	6	8	2	1	9
8	9	6	1	9	2	2	8	7
1	2	2	9	7	8	8	6	9

2	7	9	1	9	6	8	8	2
6	9	2	7	8	8	9	1	2
8	8	1	9	2	2	6	7	9
9	2	2	8	7	9	1	6	8
1	6	8	9	8	2	2	9	7
8	9	7	6	2	1	2	9	8
2	8	6	8	1	7	9	2	9
7	1	9	2	9	8	2	6	8
9	2	8	2	6	9	7	8	1



서울시
폭염 전면전
쉼터 4000곳 운영
L2

metro®

Life

백화점 3사
K-브랜드
해외진출 지원
L4



재난현장 달리고, 도심숲 가꾸고... 내일 위한 '희망 드라이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싣는다. 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공헌 활동은 단기적인 지원보다 지역사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는 동시에 시민과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와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 변화 이끄는 맞춤형 사회공헌 소방·복지기관에 지원차량 79대 기증 복지 편의성 높이고, 재난대응 현장 지원 12년간 국내 누적 기부금 515억 달성

기부 달리기 행사 '기브앤 레이스' 열어 기부금으로 아동·청소년 보호공간 마련

▲**복지기관 이동 지원 넘어 지역 재난 대응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자동차 기업의 특성을 살린 차량 기증을 통해 복지기관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차량 지원 대상을 소방기관으로 확대하며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소방재난 본부와 충북소방본부, 용인·울산·광주 지역 소방 기관에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QB 300 4MATIC' 5대를 기증했다. 지원 기관은 재



제12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Mercedes-Benz GIVE 'N RACE)'가 지난 6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난 발생 빈도와 지역 특성, 담당 임무, 긴급 투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기증 차량에는 기관 식별 표시와 무전기, 경광 등 등 재난 대응 장비가 설치된다. 현장 인력과 장비 운송 등에 투입돼 각 지역의 화재·재난 대응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공헌위원회가 2016년부터 사회복지기관과 소방기관 등에 기증한 차량은 이번 지원을 포함해 총 79대다. 복지기관에 전달된 차량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병원 방문과 문화활동,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활용돼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와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왔다.

차량 지원을 비롯한 사회공헌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국내에 누적 약 515억원을 기부했다.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를 통해 전국 34개 아동·청소년 사회복지기관에 교육지원금 2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모아 아동·청소년 보호 기반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시민이 사회공헌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기부 달리기 행사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은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확충과 성장 지원 등에 활용된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제13회 행사에는 시민 2만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인 10억2000여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명의로 기부되며 2017년 첫 행사 이후 누적 참가자는 약 16만5000명, 누적 기부금은 약 86억원에 달한다.

올해 조성된 기부금 가운데 5억원만은 동두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투입된다. 해당 기관은 동두천과 연천 지역을 관할하며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 보호, 상담과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동두천과 연천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어 피해아동과 가족은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새 기관이 문을 열면 경기 북부 지역의 아동 보호 공백을 줄이고 상담과 치료, 회복 지원을 지역 내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억원만은 부산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전용 활동공간 조성에 활용된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물며 문화·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행사가 열린 지역에도 기부 성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도심숲 조성하고 미래 자동차 인재 키운다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도심 녹지 조성과 산불 피해지역 복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 나무를 심는 한편 산불로 훼손된 산림에는 방화림을 조성해 피해 재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22년 서울시와 '그린플러스 도시숲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 도심 곳곳에 녹색 쉼터와 도시숲을 조성해왔다. 올해 5월 서울숲에 새롭게 마련한 도시숲까지 포함하면 조성 지역은 총 8곳이다. 서울숲에 새롭게 조성한 도시숲은 689㎡ 규모로 사철나무와 조팝나무, 둥근참죽 등 814그루를 심었다. 기존 수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산책로 주변에 휴식공간과 야간 조명을 설치해 이용 편의도 높였다.

도심 녹지 활성화... 도시숲 8곳 조성 산불 피해지역 산림복원·방화림 구축

자동차 전문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기술교육, 글로벌 현장 경험 기회 제공

산불 피해지역에는 산림 복원과 방화림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원, 지난해 경상도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5억원을 지원했다. 울진 도화공원의 방화림 복원은 마쳤으며 영덕 별파랑공원에는 '희망숲'을 조성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에는 자동차 산업의 전문성을 접목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를 통해 자동차 전공 학생에게 기술교육과 글로벌 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제19기 프로그램에는 전국 10개 자동차 전문학과 학생 200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 수료생 9명은 독일 본사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관계자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업 시민의 역할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전국 소방기관에 기증한 'EQB 300 4MATIC' 차량.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도심 환경 개선과 기후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서울숲에 689㎡ 규모의 '그린플러스(GREEN+) 도시숲'을 조성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트로 한줄뉴스



▲'韓 첫 MLB 투자자' 박찬호 "애슬레틱스서 뛰는 한국 선수 기대"
▲10년만에 우승 한 폰 신지은, LPGA 투어 30년만의 진기록
/사진 뉴스시스

▲'후반기 고전' LG, 코치진 보직 변경 단행... "분위기 변화 위해"
▲박지성 "축구협회장 선거인단 1만명 확대... 프로·실업·대학 등 추가"

▲김구가 광복의 감격 적은 병풍...국중박 기증유물전
▲상반기 미술시장 1108억...초고가만 웃고 양극화 심화